



[삼성 vs LG] 갈고닦은 '가전 신기술' CES서 진검승부 03



Economy

코스피	2466.46 (-19.89)	코스닥	808.01 (-14.30)
금리 (미국 3년)	2.14 (+0.02)	환율 (원/달러)	1062.20 (-2.30) (4일)

# 애플 이어 인텔도 결함 은폐... 美 IT '도덕성' 논란

CPU 성능 30% 저하로 주가 급락하는 와중에 CEO는 지분매각 나서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왼쪽)와 애플 CEO 팀 쿡. /각사

애플에 이어 인텔에서도 제품 결함 등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미국 IT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여기에 더해 각 회사 CEO들이 주식을 매각하는 등 거액의 수익을 챙겨 미국 업계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관련기사 5면)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CPU 결함 문제가 드러나며 인텔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 상당수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매체 레저 가제트는 지난해 11월 29일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보유하고 있던 인텔 주식 88만9878주를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인텔 내규에 따라 CEO가 보유해야 하는 주식 25만주를 제외한 지분 전량을 매각한 셈이다. 총 환산금액은 3932만 달러(약 420억원)에 달한다.

인텔의 2인자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다가 지난해 중순 인텔은 떠난 스테이시 스미스도 지난해 10월 30일 인텔 주식 47만 2337주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465달러(약 223억원) 어치다. 지난 석 달 동안 인텔 직원들이 처분한 인텔 주식은 148만 7504주(약 702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내부정보로 이번 CPU 결함 이슈를 확인하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생산된 인텔 CPU의 하드웨어단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경우 PC 성능이 3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인텔 주가는 3.4% 급락했다.

그간 인텔은 세계 PC 시장의 93%를 점유하며 승승장구했다. 때문에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소홀한 모습도 보여왔다. 2013년 인텔의 6대 CEO로 취임한 브라이언 크르자니크는 PC 시장이 둔화되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신사업 실패와 PC 시장 둔화가 겹치자 실적 부진을 우려한 크르자니크는 2016년 전체 인력의 11%를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만 2000명이 해고된 이 구조조정의 대상자는 대부분 PC, R&D 부문 인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텔 CPU는 기술적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전까지 제조공정 미세화와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해 CPU 세대를 구분했지만 이제는 약간의 개선을 가하거나 작동 클럭을 올리고 코어 수를 늘리는 등 부분적인 성능 향상에 그치는 수준이다.

14나노미터(nm) 공정을 적용한 6세대 CPU에 이어 출시된 7세대는 14nm 공정을 안정화시킨 14nm ++ 공정을 적용하고 작동 클럭을 200~300MHz 향상시키는데 그쳤다. 8세대는 물리 코어 수를 늘려 성능을 개선했다. 결과적으로 인텔 CEO를 포함한 주요 이윤을 위해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해고된 탓에 결함 개선과 기술혁신에 실패한 셈이다.

인텔에 앞서 배터리 게이트 파문을 겪고 있는 애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을 이유로 사용자 동의 없이 구형 아이폰에 대한 성능 저하 패치를 적용해 비판을 샀다. 이에 애플은 해당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터리를 할인가에 교체해주겠다는 보상을 내놨지만, 보상안이

아닌 배터리 판매 프로모션이라는 사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IHS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6 배터리 교체 비용은 3.6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무어인사이드의 패트릭 무어헤드 애널리스트도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 원가는 10달러도 안 된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에 말했다. USA투데이는 이를 인용해 "배터리 교체비용이 팀 쿡을 비롯한 애플 경영진의 연봉보다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애플 CEO인 팀 쿡은 2016년 875만 달러(약 93억원), 2017년 1280만 달러(약 137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했다. IHS에 따르면 2016년 애플은 아이폰6S 6200만대, 아이폰7 5000만대, 아이폰7 플러스 2500만대, 아이폰6S 플러스 2400만대 등 1억6000만대 정도의 아이폰을 판매했다. 이번 배터리 교체 대상 수량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영진이 과도한 연봉을 챙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심상치 않은 원화 초강세 환율 1050원까지 밀리나

연초부터 원화 강세(달러 약세)가 심상치 않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연일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더니 1070원 아래로 내려갔다. 절대적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 선도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원 내린(원화 값 상승) 1062.2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초 1200원선에서 연말 1070원선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첫날을 1208.0원으로 시작해 마지막 날 1070.5원으로 마감했는데 각각 연중 최고치와 최저치였다.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1061.2원으로 지난 2014년 10월 30일 1055.5원을 찍은 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원화 가치 상승은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개

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커졌고, 이는 달러화의 약세 움직임을 부추겼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각종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기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던 대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됐다.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원화 강세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하면 대내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빠르다고 정부가 개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원화 강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환율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수급이라든지 시장을 존중하되 과도한 수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대처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있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l@

## 현대차, 3년 내 '무결점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美 오로라와 동맹 구축 'CES 2018' 기간 中 발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Aurora)와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이번 협업에 이어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한층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런 내용의 '현대차 그룹-오로라' 프로젝트를 이달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소비자가전전시회) 2018' 기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 발표 현장에는 양웅철 현대차 부회장(연구개발총괄)과 크리스 엄슨 오로라 최고경영자



현대차 오로라 협업에 우선 활용 차세대 수소전기차. /현대자동차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오로라는 구글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 테슬라 오토파일럿 총괄 스티븐 앤더슨, 우버의 인식기술 개발 담당 드류 배그넬 등 세계적 자율주행 기술 선구자들이 모여 창립한 기업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각종 센서·제어기, 클라우드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는 백엔드(Back-End) 솔루션

등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협업을 통해 세계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로라와 동맹으로 '무결점의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조기 출시해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3년 안에 업계가 이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적으로 구현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

로 잡았다.

이를 위해 양사는 2021년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 4'(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수준의 자율주행을 '스마트시티'에서 실현하고, 이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차를 실제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레벨 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벽한 자율주행에 가깝다.

이런 목표를 위해 양사는 조만간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적용할 최적의 스마트시티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대도시 전체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도입된 곳으로, 스마트시티 내 모든 도로에는 차와 도로가 서로 통신하는 V2X(자동차와 사물간의 연결) 인프라가 구축된다.

(8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 만나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 필요 재정-통화 당국 공조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경제의)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재정-통화 당국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올 한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많다"며 김 부총리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새해 첫 조찬 회동을 갖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3%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환율·노동환경 변화 등 제조업 체감경기 부정적

대한상의 조사, 올 1분기 BSI 86

국내 제조업체들은 1분기 체감경기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환율 불안, 글로벌 긴축기조,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1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망치는 86으로 지난 4분기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기준치(100)를 넘어서진 못하며, 새해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측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아직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새해 기업경영의 대외 불확실성을 묻는 질문에 환율변동(52.1%), 글로벌 긴축 기조(35.5%), 통상마찰 우려(28.6%), 북핵 리스크(24.7%) 등이 꼽혔다. 대내외인으로 노동환경 변화(68.8%),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52.0%), 가계부채(14.7%), 에너지 믹스 변화(9.3%) 등이 집계됐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 1면 '심상치 않은 원화 초강세...'서 계속

### 원·달러 환율 상저하고 패턴 예상

문제는 추가 하락폭이 얼마나 될 지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원화 강세를 완화할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박은수 KDB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수출 가격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올 하반기 이후로는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 기업들은 부담이다. 특히 달러 약세에 유가 강세까지 겹쳤다.

IBK경제연구소가 수출 중소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은 1132.5원으로 조사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줄 News

#### 정치·산업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올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밝힌다.

▲ 공식 통합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경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셰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부당함과 함께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 세계적 반도체 기업 인텔의 PC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 금융·마켓·부동산

▲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18년을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해'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 올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재무상환 능력만 따져 매기는 '자체신용도' 제도가 도입된다.

▲ 새해 마수걸이 분양이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김포, 하남지역의 물량이 많다.

#### 유통&라이프

▲ 중국의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됐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 켈러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으로 가격 상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노조 파업에... 현대차 부활 '급제동'

작년 이어 올해도 임단협 갈등 평일·철야 등 모든특근 거부에 각종 공사도 전면 중단하기로 기아·지엠도 노사갈등에 차질



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대의원 및 현장위원들이 울산공장 본관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형'인 현대자동차가 갈수록 악화되는 노사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2년 연속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차는 올해 해외 판매목표를 낮추고 내수 판매목표를 높이는 등 양적 성장을 포기했다. 그러나 노조는 새해 벽두부터 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일찌감치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판매량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침체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68만8939대, 해외 381만5886대를 포함해 총 450만482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연간판매량이 6.5% 줄어든 수치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도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한 것이어서 심각성이 크다.

해외판매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부진 영향에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미국은 자동차 수요가 정체기에 진입한데다 경쟁이 격화됐다. 중국에서는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반(反) 한국정서로 판매가 급감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내수판매는 선방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68만8939대로 전년 같은 기간 65만8642대와 비교해 4.5% 증가했다. 신형 그랜저와 코나, G70 등이 판매를 견인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사업관리 체계 고도화' '수익성 중심의 내실 강화' '미래 전략방향 구체화' 등 3개 키워드를 경영 과제로 제시하고 판매 목표도 467만5000대로 설정했다. 내수는 70만1000대, 해외는 397만4000대다. 이는 지난해 판매목표인 508만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각오를 다진 현대차가 연초부터 안방에서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노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판매를 이끌고 있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걱정이 크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코나는 등장과 함께 돌풍을 일으켰다. 8월부터 11

월까지 국내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조가 11월말과 12월 파업을 진행하면서 12월 판매량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사측이 물량 확보를 위해 코나를 추가 생산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지난해 11월 말 파업이 진행되면서 울산 1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파업으로 코나 1230여대, 175억 원가량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사측은 추정했다.

올해도 노사간 임금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노조는 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조는 4일과 5일, 8일과 9일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오는 10일에는 6시간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또 평일·철야를 포함한 모든 특근을 거부하고 각종 공사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결국 올해 양적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8월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지은 쌍용차

는 생산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3년 연속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지은 르노삼성은 완성차 중 지난해 생산량(26만4037대)이 유일하게 8% 이상 증가했다.

한편 현대차를 비롯해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짓지 못한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도 노사 갈등으로 피해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19차례 파업을 진행한 결과 약 1조3100여억원에 달하는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6월부터 부분파업을 벌인 창원공장이 현재까지 7000대 수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의 침체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수출기미를 겪고 있다"며 "향후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이어지면 수 많은 업체(본사는 물론 협력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인천공항 2터미널, 셔틀운행·안내강화 등 혼란 최소화

이낙연 총리, 현황 점검  
고객 혼란 최소화 만전



제2여객터미널 전경.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여는 18일 이후 터미널을 잘못 찾아온 승객을 위해 1~2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터미널을 혼동하는 승객이 없도록 항공편 예약 후 발송하는 전자항공권과 문자메시지 등에 터미널 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현황을 점검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한다. 4개 항공사 이용객은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로 가서 비행기를 탑승해야 한다. 아시아항공과 국내 저비용항공사(LC

C), 그 밖의 외국항공사는 기존 1터미널을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 정차장, 철도 승차장, 주차장 등 주요 지역에 총 102명의 안내요

원을 배치해 이동교통 수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E 티켓' 뒷면엔 제1·2여객터미널 위치도를 첨부한다. 제2여객터미널인 경우 알아보기 쉽게 큰 글씨 등으로 표기할 방침이다.

KTX와 공항철도는 제2여객터미널로 연장 운행한다. 공항버스도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순차 정차한다. 터미널을 잘못 찾아갔을 때 신속히 다시 이동할 수 있도록 두 개 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54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늘어난다. /양성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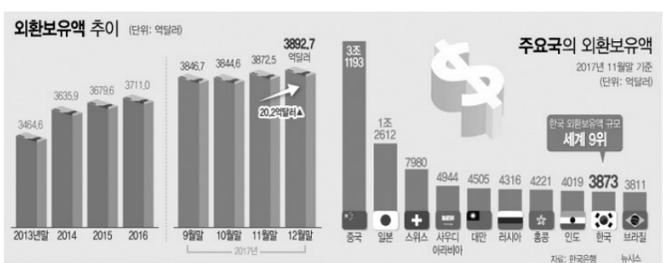
# 지난달 외환보유액 3893억 달러...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달러화 약세·유가궤 수익 영향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92억7000만 달러로 전월 말 3872억5000만 달러 대비 20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사상 최대 기록이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가 평가 절상되면서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



으로 분석된다. 외환보유액은 통상 달러화로 환산해 표시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미 달러인덱스는 92.1로 한 달 새 1.0포인트 하

락한 반면 유로화, 파운드화는 미 달러 대비 각각 0.8포인트, 0.2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유가증권 수익과 만기 채권

상환자금 일부가 예치금으로 쌓였고 운용자산 수익이 확대된 것도 외환보유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은 3588억3000만 달러로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206억5000만 달러(5.3%), 금 47억9000만 달러(1.2%), SDR 33억7000만 달러(0.9%), IMF포지션 16억2000만 달러(0.4%) 등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같고 닮은 '가전 신기술' CES서 진검승부



## 美 'CES 2018' 9일 개막

150개국 4000개 기업 참가  
올해 슬로건은 '스마트시티'

가전업계의 맞수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9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8에서 자존심 건 대결에 나선다.

CES는 지난 1967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기기 제품 전시회다. 올해 50회를 맞아 전세계 150개국의 4000여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CES의 슬로건은 '스마트시티'다. 지난해 '스마트홈(가전제품의 연결)'이 연결성(Connectivity) 개념이 도시단위로 확장된 것으로 올해는 '스마트시티(도시의 공공기능을 연결)'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CES 2018에서 스마트시티에 맞춰 차세대 TV를 비롯해 연결성을 강화한 생활가전 등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자사 AI 기술인 '빅스비'를 적용한 다양한 가전제품을 공개한다. 전시 주제는 '원삼성'으로, 다양한 가전제품에 적용된 AI가 사용자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줄지에 맞춰 전시회장을 꾸밀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신기술이 더해진 초대형·초고화질 프리미엄 TV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75인치 이상 프리미엄 TV 제품에 주력한다는 전략 속에 88인치 QLED TV를 선보인바 있다.

올해 CES에서 90인치에서 100인치를 넘나드는 초대형 QLED TV에 '마이크로 LED(발광다이오드)' 기술 적용된 TV들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LCD(액정 표시장치) 속 광원(백 라이트)에 사용하는 LED를 100μm 이하로 만든 것이 마이크로LED로, 에너지 효율이 기존 디스플레이들보다 우수해 대형화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9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8에서 자존심 대결을 나선다. (왼쪽부터) 삼성전자가 CES에서 선보일 예정인 슬림형 사운드바 신제품(NW700)과 'LG AI 제품들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을 주제로한 LG전자 전시장 모습. /각사



삼성전자가 CES 2018에서 선보일 커브드 모니터 신제품 CJ791. /삼성전자



### 삼성전자

AI '빅스비' 적용 가전제품 공개  
100인치 QLED TV 선보일 듯  
인공지능 접목 드럼세탁기 진열

비교적 중저가에 속하는 '갤럭시A8'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A8은 전면 듀얼 카메라를 통해 인물 뒤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2018년형 노트북,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드럼 세탁기인 '퀵 드라이브', 세프컬렉션 조리기기 제품 4종, 스마트워치 '기어 스포츠', 피트니스 밴드인 '기어 핏2 프로', 41% 수준으로 더 얇아

### LG전자

AI 스마트홈 체험 '씽큐 존' 조성  
서빙 로봇 등 '클로이' 3종 전시  
AI 탑재 올레드 TV 씽큐 등 공개

진 '슬림형 사운드바' 등으로 전시장을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수장인 김현석 사장을 비롯해 인터넷모바일(IM) 부문장인 고동진 사장,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김기남 사장 등도 모두 CES 현장을 찾아 글로벌 IT 트렌드를 관찰한다.

LG전자는 올해 CES에서 AI 브랜드 '씽큐(ThinQ)'를 전면에 내세웠다. 'LG AI 제품들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을 주제



LG전자가 'CES 2018'에서 공개할 서빙 로봇(Serving robot), 포터 로봇(Porter robot), 쇼핑 카트 로봇(Shopping cart robot) 3종. /LG전자

로, 전시장을 'LG 씽큐 존'으로 꾸민다.

LG 씽큐 존에서 관람객은 생활하는 공간마다 음성인식 AI 가전들이 IoT로 구현되는 스마트홈을 체험할 수 있다.

또 AI를 탑재한 '올레드 TV 씽큐', '슈퍼 울트라HD TV 씽큐' 등 2018년형 '씽큐 TV'도 공개한다. 씽큐 TV에는 딥씽큐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돼 사용자는 음성만으로 화면모드 변경, 채널 변경, 볼륨 조절 등 다양한 TV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로봇 3종도 새롭게 선보인다.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으로 이번 CES에서 로봇 포트폴리오를 총칭하는 브랜드 '클로이(CLOI)'다. '똑똑하면 서도(CLever & CLear) 친근한(CLOse) 인공지능 로봇(Operating intelligence)'을 의미하는 클로이는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객과 교감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동반자를 지향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가 만든 중저가형 스마트폰인 K시리즈와 빔프로젝터인 'LG프로빔 TV', 스마트 '매직 스페이스 냉장고', '트윈워시' 세탁기·건조기 세트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씽큐 존을 찾은 고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LG 인공지능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에서도 조성진 부회장을 비롯해 신입 MC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황정환 부사장 등 주요 사업본부장들이 CES에 출품동한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우리에는 한 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짜증만 늘고 자꾸 딴 짓만 해요.”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신용의상점-버들표 유한양행 (광고문의: 2017-1413-2200)

**高함량 포커스비타민으로 피로회복부터 빠르게!** (타이머디스플레이 제외)

피로회복 / 체력저하 / 눈의 피로·건조감 / 성장기비타민D·칼슘·아연 보충 / 구내염, 어깨결림

**高함량 포커스비타민 메가트루 포커스정 Focus**

- 눈의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비타민 A(베타카로틴)
- 베포티아민 성분으로 8배 더 높은 흡수율의 비타민 B
- 햇빛을 피기 어려운 실내생활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D
- 칼슘, 아연, 마그네슘과 생약성분인 로얄젤리 함유

\*본대포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 적폐수사 영장기각 반발 10여건... '수사편의' 제동거는 法

## 조운선 영장 기각도 강력 반발 "수사편의주의 관행 개선 안돼"

최근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하는 경향을 보여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검찰의 관행과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한 사례는 10여건에 이른다.

지난달 28일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조 전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맷길 공작'에 관련한 의혹을 받는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반발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9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면 공격에 나섰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국정원 댓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의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법관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에 따라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는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런 모습이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과 여론의 힘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구속을 좌우하던 옛날에는 검사가 영장 기각한 판사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으로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죄가 무거워서 실행 선

고가 거의 확실하거나 신병 확보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망 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붙잡아 놓고 조사하면 편하다는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하는 법관도 괴롭다"며 "법이 정한 기준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비난이 쏟아진다"고 선부른 여론재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관련 혐의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글·사진=이병종 기자 jcker@metroseoul.co.kr

##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통 남북관계 초미 관심사로

23개월간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 연락관은 오전 9시30분께 전날 개통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개시통화에 성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통화가 이뤄져 상호 회선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우리 측이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언급한 뒤 통화를 끝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이날부터 우리가 고위급회담을 오는 9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회담 일정과 의제,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 시 북측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오게 된다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대표를 관계부처 협의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담의 성격, 의제, 이런 것들을 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표단을 꾸려온 시간의 관례 등을 참고해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있는 만큼 주축이 돼 일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한 자리에서 "알다시피 우리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간 대화로 이어져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과 나누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文대통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한일 합의' 공식 사과

## 할머니 8명 초청해 함께 오찬 "뜻에 어긋나는 합의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전 정권 시절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쾌유를 빌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이옥선 할머니 등 8명과 오찬을 하며 "(한국과 일본의) 지난 (위안부)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2·28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하는데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청와대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할머니 8명 외에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뵈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할머니들을 보니 꼭 제 어머니를 뵈는 마음"이라며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

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돼 기쁘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꾸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전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한 자리에서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자 청와대에 모셨는데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셔서 싸워주셔야 한다"며 "할머니께서 쾌유해 건강해지시고 후세 교육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께서 바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청와대에서의 오찬을 앞두고 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탓에 오찬에 불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인사를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병문안을 마치면서 김 할머니에게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김정숙 여사가 마련한 목도리, 장갑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때 김 할머니를 초청했고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강령 모색

공식 통합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했다.

이 의원은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이태홍 부원장과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양당 정강·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바른정당은 개혁적이고 온건한 보수를 표방한다"며 "통합정당은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을 표방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 교육, 복지 정책은 물론 노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대북관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 두 대표의 차이는 이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관) 차이가 똑같다"며 "약간의 차이는 오히려 정당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이태홍 부원장과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양당 정강·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바른정당은 개혁적이고 온건한 보수를 표방한다"며 "통합정당은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을 표방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 교육, 복지 정책은 물론 노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회의 출범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태규·이인주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사 문제에서도 양당의 정강·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최 부소장 역시 "두 당의 정강·정책 구성과 내용을 뜯어보니 구조적 유사성이 높고 분야별 구성과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정당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개혁보수,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렇게 칭하는 것은 양당 통합의 의미를 모두 살리지 못한다"며 "합집합 개념의 '중도개혁보수정당' 혹은 교집합 개념의 '합리적 개혁정당'을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중소형주·달러貨 추천… 3년이하 대출은 변동금리로”

## 재테크가 **희망**이다

### (2부) ① PB가 추천하는 재테크

금리인상 등 금융환경 다변화  
자산형태·재테크 점검 필요

올해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 재테크 기류도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금융 정책으로 투자·대출 유형도 변화하는 추세다.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은 “2018년은 추가 금리 인상,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가계부채 대책 등에 따라 시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자산형태와 재테크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 ◆채권보다 ‘주식’ 뜬다

4일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산관리전문가(PB)들은 올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예금보다 채권, 채권보단 주식이 유망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KEB하나은행 클럽원 PB센터 이성이 PB부장은 “미국에 이어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상승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2~3년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므로 채권투자는 투자 방향을 짧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기예금보다 단기물 위주의 채권 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김현섭 PB팀장은 “2018년 채권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앙은행 보유자산 축소 계획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유 비중 축소를 제안했다.

(은행 PB가 말하는 2018 재테크방법)

/각사

	KEB 하나은행 이성이 클럽원PB센터 PB부장	신한은행 김영웅 PWM목동센터 팀장	KB 국민은행 김현섭 도곡 스타PB센터 PB팀장	우리은행 김희경 독섬역지점 PB팀장
구분				
추천 투자 유망상품	국내 중소형주 4차산업·로보틱스 테마주 외화통화(달러, 유로화)	패시브 투자(코스닥130ETF) 다만, 조정시 분할 매수하거나 목표투자금액 분할 매수	ELS, 달러 ELS 국내 중소형주 펀드 대출 채권	하이일드채권, ELT 美·中 관련 펀드
항목별 추천 투자비중	단기물 위주의 채권투자 유리 주식, 펀드 수익률 상승 경향	(안정성향)정기예금·1년 미만채권 50%, ELS 30%, 신항국·국내주식형펀드 20% (공격성향)은 정기예금/1년미만채권 30%, 국내주식형펀드 20%, 원자재펀드 10%, 신항국주식형펀드 20%, ELS 20%	주가 상승세지만 경기과열 신호, 자산가치 하락 대비 포트폴리오 투자 추천	해외 하이일드 채권 30%, ELT 40%, 주식형펀드 30% 주식형 펀드는 미국, 중국, 국내 주식 위주로
대출관리	3년이상 장기대출은 고정금리 3년이하 단기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통한 레버리지 투자 지양 투자보다 대출상환 우선	3년 이하 대출 또는 중도상환 계획있으면 변동금리 추천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신규대출은 정책지원, 우대금리 검토

이와 달리 주식 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김영웅 팀장은 “올해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시행 및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투자 방법으로는 ‘패시브 투자(코스닥150 ETF)’를 추천했다.

김 팀장은 “개인투자자들은 종목선정과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 투자성과가 반드시 플러스(+)일 가능성은 낮다”며

서도 “다만 최근 이런 기대감으로 코스닥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정 시 분할 매수하거나 목표투자금액을 분할해서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이 PB부장은 주식 중에서도 국내 중소형 주식과 4차 산업관련주를 투자 유망상품으로 꼽았다.

이 부장은 “글로벌 매크로 확장 및 기업 실적 호조세, 배당성향 확대 기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대감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국내 주식 투자가 유리해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4차 산업, 로보틱스 테마의 장기적인 투자 전망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펀드 분산 투자… 대출은 변동금리로

투자 분산 시엔 투자 성향에 따라 해외 채권, 국내주식형펀드 등을 적절히 배분할 것을 조언했다.

우리은행 독섬역지점 김희경 PB팀장은 “미국중심 글로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으로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부도율이 낮아지면서 투자 부적격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하이일드 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해외 하이일드 채권 30%, ELT(주가연계신탁) 40%, 주식형펀드 30%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식형펀드는 미국, 중국, 국내주식 위주의 투자를 권유했다.

김영웅 팀장은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정기예금 혹은 1년 미만의 채권 비중을 50%, 대안투자로 불리는 ELS(주가연계증권)를 30%, 달러약세로 경기호조가 예상되는 신흥국 또는 국내주식형펀드 비중을 20%로 제안했다.

공격성향의 투자자는 정기예금 혹은 1년 미만 채권 비중 30%, 국내주식형펀드 20%, 물가 및 경기 상승 기대로 인해 원자재펀드 10%,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20%, ELS 비중 20%를 제안했다. 그는 “다만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종목선정의 어려움과 업종 대표주가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추격매수에 대한 부담으로 간접투자인 펀드위주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출 관리에 대해선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를 지양하고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웅 팀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과 금리 인상기 등을 감안해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투자보다 대출 상환에 우선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대출의 경우 확정금리형 대출로 옮기되, 단기간에 매도할 예정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PB팀장은 “현재 변동금리와 5년 고정금리의 차이는 약 0.7%포인트에 불과하고, 당분간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대출자금을 3년 이하로 사용할 계획이거나 중도 상환 계획이 있다면 고정 금리보다 변동 금리를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애플 이어 인텔도… 위기의 글로벌 IT기업들

# 세계 PC 90% 탑재된 ‘인텔 CPU’, 성능 절반으로 ‘뚝’

치명적 보안 문제 확인… 해킹 우려  
인텔 “데이터침해 발생 가능성 없어”



1,8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세계적 반도체 기업 인텔의 PC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다. 인텔 CPU를 사용하는 모든 PC들에 상당한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의 CPU에서 치명적 보안 문제가 확인됐다. 커널 메모리 정보가 메모리 덤프 시 누출되는 증상으로, 보안이 필요한 운영체제 주소공간 등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된다는 것. 인텔 CPU를 사용하는 PC 모두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해지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 이어진 인텔 CPU의 고질적인 하드웨어 결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출시된 2세대 CPU(샌디브릿지)부터 지난해 출시된 8세대 CPU(커피레이크)까지 i3, i5, i7 등 모든 라인업 CPU 제품이 해당된다.

이러한 보안 문제는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리눅스는 이미 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업데이트는 오는 9일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할 경우 CPU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드웨어 결함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때문

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문제가 되는 부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용을 들자면 5층짜리 건물의 5층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균열 현상이 발생하자 5층과 4층을 폐쇄하고 3층까지만 사용하는 식이다.

때문에 파일시스템 입출력(I/O) 성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컴파일러 벤치마크 중 이니셜 셋업항목에서 15%, SQL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벤치에서 15% 성능 저하가 나타났다. 현재 업데이트를 마친 리눅스 기반 PC에서는 최종적으로 5~30% 수준의 성능 손실이 발생했다. 인텔 CPU와 NVMe SSD를 조합

한 경우 50% 수준의 하락이 관측됐다. NVMe SSD는 차세대 규격을 사용한 저장장치로, PC와 직접 통신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다. 고성능 PC가 필요할 경우 사용한다.

이번 성능저하가 문제되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인텔 CPU가 세계 시장에서 93%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정부, 기업, 민간 등 세계 각지의 PC 사용자들이 성능 저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텔은 “버그나 결함이 아니다. 데이터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관련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즉시 적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인텔 외의 업체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텔은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 “국내 은행 ‘바젤Ⅲ’ 도입으로 BIS비율 소폭 상승”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도입으로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 규제 개편안과 관련해 17개 국내 은행이 현재 자산구성 유지를 가질 경우 이들의 BIS 비율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저위험

자산 위주로 구성된 일부 대형은행의 BIS 비율이 상승했다.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는 은행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해 위험자산 보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과 같은 저위험 자산의 위험가중치(RW)는 낮아지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와 같은 고위

험 자산의 RW는 높아진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이나 투자자산 등의 RW 차등 폭이 커지면서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원은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행시기도 집중된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향후 업무추진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규제 개편 설명회 개최	■						
2 리스크별 T/F 구성 및 운영		■	■	■			
3 규제 개편 영향분석 실시			■	■			
4 공개협의안 발표 및 세칙개정				■			
5 규제 시행전 검증기간 운영					■	■	■
6 은행 자체 리스크 모형 승인·점검						■	■

바젤Ⅲ가 국내 은행 운영 환경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최초로 ‘공개협의안’ 절차를 시행하며,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엄현정인턴기자 smahn1@

# “세탁기 관세 부과 땀 부메랑 되어 美 일자리 위협”

## 삼성·LG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주장

美 주정부 나서 반대입장 표명  
관세 부과는 소비자 충격 초래  
현지 일자리 창출 ‘헌신’ 강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도시의 가전제품 판매장에 윌펠 세탁기와 나란히 전시된 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공청회는 무역 관련 부처가 속한 미국 무역정책위원회(TP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USTR가 마련한 자리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물론 미국 주정부까지 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존 헤링턴 삼성전자 미국법인 선임 부사장은 이날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뉴베리에 있는 공장은 완전히 통합된 생산설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에 따른) 관세는 뉴베리 공장, 우

리아 거래하는 소매업체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을 위한 세탁기의 대부

분을 뉴베리 공장에서 공급할 계획이긴 하지만 이를 하룻밤 사이에 할 수는 없다”며 “뉴베리에서 생산을 늘려가는 동안 우리 소매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려면 일부 세탁기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링턴 부사장은 “어떤 종류의 관세든 그 궁극적 영향은 결국 미국에서의 생산과 고용, 미국 소비자들에게 ‘루즈-루즈(lose-lose)’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프레일리 삼성전자 사우스 캐롤라이나 가전공장 매니저도 공청회에서 “우리는 이미 504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그들 중 90%는 뉴베리나 그 인근 지역에서 고용된 현지인들”이라며 “세탁기 생산라인이 모두 가동되는 2018년 말까지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레일리 매니저는 “하지만 이는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며 “삼성의 수입량을 줄이는 관세는 (뉴베리 공장의) 점진적인 생산량 증대나 생산 이전 전략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LG전자도 공청회 이후 내놓은 성명

을 통해 “LG와 삼성 모두 미국에서 세탁기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북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LG와 삼성의 세탁기 중 수입분은 30%에서 4%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비록 ITC가 120만대의 수입 쿼터를 권고했지만 LG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는 미국 정부가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 월풀의 제안을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제안은 테네시주에 해롭고, 미국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며 미국 경제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주요인사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궤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려... 도미노 가격인상 현실화

## KT&G ‘핏’ 가격인상 검토 중

궤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으로 가격 상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업계는 가격 인상 배경으로는 담뱃세가 3000원에 달하고, 소매점 수수료가 약 10%인 점을 고려해 원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89%인 750원으로 인상되는 등 궤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모두 1247원이 올랐다. 현재 궤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곳은 가격을 인상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4일 KT&G에 따르면 궤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글로



필

/각사

부과되는세금 인상으로 ‘필(Fit)’의 전용 담배 ‘핏(Fiit)’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KT&G 관계자는 “궤련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제세부담금이 모두 인상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G는 궤련형 전자담배시장에서 후발주자로 공격적 가격정책으로 점유율

을 확보하려 했지만 세금 인상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됐기 때문이다.

KT&G가 가격을 올리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의 ‘글로(glo)’도 가격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BAT코리아 측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IQOS) 전용 담배 ‘히츠(HEETS)’의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한 바 있다.

KT&G와 BAT코리아는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가격 인상에 나서야한다. 그러나 필과 글로가 아이코스보다 점유율이 낮아 인상 시

점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궤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궤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위 아이코스가 히츠의 가격을 4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향후 경쟁사의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궤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체 담배시장에서 약 1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두업체가 가격을 선점한 이상 그 가격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년 전 담뱃세 인상으로 벌어졌던 ‘담배 사재기’가 궤련형 전자담배에도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세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애연가가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 한보루씩 구매를 하거나 다른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2~3갑씩 구매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 사재기를 우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진도 6.3에도 끄덕없다

## KTX, 보강·성능 개선 7.3兆 투입

KTX와 지하철 등 철도시설 보강과 성능 개선에 5년 동안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부산 지하철에도 국비 57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2018~2022)’을 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8월 국토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단’을 꾸려 전국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벌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철도시설 등급은 C등급(보통·3.33점/5점)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는 C등급(3.29점), 도시철도는 B등급(양호·3.62점)이었다.

국토부는 중장기 개량투자를 통해 철도

시설 노후율을 작년 기준 37.5%에서 2022년 30.0%로 낮추고, 2027년에는 24.0%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 개량투자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성능평가 결과가 낮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4조1093억원을 집중 투자해 안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1~4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 등 개통 30년이 넘는 도시철도 보강을 위해 57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진·홍수 등에 대비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조2194억원을 투입한다.

경주·포항 지진을 겪으며 필요성이 제기된 철도 내진성능 강화는 내년까지 모두 완료한다. KTX 시설도 당초 진도 5.5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진도 6.3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내진성능 보강에 나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 정성립 “파괴적 혁신으로 첨단 조선소 만들자”

(대우조선해양 사장)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만들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4일 시무식에서 “올 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가는 도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매출과 수익 또한 최적화된 회사의 규모에 맞게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강세, 신규 수주 제품 가격 하락, 자재비 인상과 원가에서 차지하는 고정비 증가 등을 꼽으며 흑자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 사장은 ▲파괴와 창조 ▲프로세스·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제 ▲수익과 품질 중심 내실 경영 ▲자부심 넘치는 대우조선해양(DSME) 등 네 가지 경영 방침을 전했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서는 가격과 기술력에서 근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우리도 첨단 조선소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역량을 모아 프로세스로 만들고 시스템화하지 못해 노후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표준과 절차에 기반한 업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 사장은 희생의 기회를 준 국민들의 믿음을 잊지 않고 회사를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올리겠다는 각오로 올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를 향한 외부의 시선이 굵지 않으나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그렇기에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뒤돌아섰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되돌릴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 안전과 윤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것을 부탁한다”며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항상 유지한다면 회사의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문 기자 ysw@

## 긴 겨울을 보내는 몇 가지 방법

빔 프로젝터로  
로맨틱한 겨울 영화 보기

뽕뽕한 스피커로  
신나는 캐롤 밤새 듣기

이불 속 노트북으로  
미드 시리즈 하나 다 보기

태블릿PC로  
못 읽었던 장편소설 읽기

장롱 속 캠코더로  
크리스마스 영상 만들기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모든, 아니 더 많은 즐거운 일들 속에  
반도체가 있다는 사실

어쩌면, 당신의 더 즐거운 겨울을 위해  
반도체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SK 하이닉스

# 사드 해빙 체감 못하는 면세업계... “평창에 큰 기대”

유커 유입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어  
보따리상 경쟁에 수익성 대폭 하락

중국의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됐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일부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의 방한이 용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체들은 여전히 사드 보복 제재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달 유커들의 다시 유입되면서 면세업계의 부활이 기대됐지만 현재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개인관광객이거나 보따리상이다.

그간 면세업계는 사드 보복 이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보따리상을 주고객으로 유치해왔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연간 매출(12조2757억원)을 넘어섰다.

예상이 빚나간 결과는 보따리상의 ‘싸늘이 쇼핑’ 효과 덕분이다. 실제로 면세



지난달 중국단체관광객들이 장충동 소재 신라면세점을 방문해 환영을 받으며 쇼핑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한국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된 이후 중국단체관광객으로서 첫 입국한 관광객들이다. /호텔신라

점 업체들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펼치며 보따리상 유체에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매출은 끌어올렸지만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

은 지난 2분기 298억원의 영업이익자를 기록했고 신규면세점 또한 줄줄이 적자를 냈다. 연명하기 위한 ‘마진없는 장사’가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면세업계 수익성이

기대해볼만하다는 평가다.

우선 평창올림픽 개막으로 수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한다. 또 2월에는 중국 춘제(춘절·설)를 앞두고 선물 수요도 소폭 늘어났다. 3월 이후부터는 지난해부터 실

적이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발생한다.

이후 추운 날씨가 풀리면 여행 성수기가 찾아오고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는 중국 노동절도 다가온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면세점 업체들이 지난해 상반기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구조적으로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며 “사드 사태 마무리로 중국인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면세업계에서는 다가오는 춘절, 올림픽 개막 등으로 행사를 기획하고는 있지만 예년만큼 큰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대거 유입돼야 사드 해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에서 여러가지 허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약 조건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사에서 상품을 다시 기획하고 고객을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개별 관광객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 및 임직원들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오른쪽 첫 번째)를 예방하고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한화건설

## 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탄력

최광호 대표이사·이라크 총리 면담  
총리 신뢰 속 안정적 추진 발판 마련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사업이 이라크 총리의 신뢰 속에 안정적 추진 발판을 마련하고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최광호 대표이사가 지난 연말에 이라크 현지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아바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수행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냈고, 이라크 국영은행장들에게 안정적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한화건설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아바디 총리는 비스마야 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바그다드 중심부와 연결되는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의 조속한 추진’ 등 이라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라크 총리 면담의 후속조치로 한화건설은 작년 말 이라크 정부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대금 약 1억7000만 달러 규모를 수령했고, 공사 진행에 따라 1분기 중 2억달러 이상의 추가 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건설은 이를 통해 2018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비스마야 신도시는 한국형 신도시의 수출을 통해 한국과 이라크가 국가적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는 사례”라며 “한국과 이라크, 양국 정부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라크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약 10만 가구의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누적 수주액이 총 101억달러(한화 약 11조원)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32%, 누적 수주액은 32억 5000만달러다. /이규성 기자 peace@

## 오로라 프로젝트, 차세대 수소전기차 활용

>> 1면 ‘현대차, 3년 내...’서 계속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스마트시티가 모두 후보로 검토될 것”이라며 “선정되면 이후 해당 도시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소전기차는 대용량 전지 탑재로 안정적 전력공급, 장거리 주행 등의 장점을 갖춰 자율주행 시험차량으로 가장 적합

하다는 게 양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자율주행 4단계 수준의 기술을 탑재, 다음 달 초부터 국내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시연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도 오로라와 공동연구 과정에 활용된다.

양사는 향후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성훈 기자 ysw@

## ‘10-1’ 달성한 상위 1% 명품기업!

(매출 10조-영업익 1조)

지난해 ‘10-1’ 달성 기업 27곳  
올해韓경제 분위기도 상승세

올해 한국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매년 의례적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전망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실제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 호조와 함께 한국 경제 분위기도 좋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교역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뿌리는 ‘매출 10조-영업이익 1조’를 뜻하는 ‘10-1 클럽’ 국내 대기업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명품기업’이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강력한 성장엔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27개 기업 ‘10-1 클럽’ 예상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50개사 가운데 매출액이 10조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27개로 나타났다.

가장 뛰어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인 15조9000억원 수준을 달성하면 지난해 매출은 240억 6075억원, 영업이익은 54조424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 비 각각 19.2%, 86.1% 증가한 수치다.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질주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추정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70조 3724억원, 66조187억원이다. 전년 대비

(2017년 ‘10-1’ 클럽 기업 명단)

종목	매출액(E)	영업이익(E)
삼성전자	2,406,075	544,246
현대차	966,901	50,511
SK	911,771	59,376
POSCO	608,374	47,287
LG전자	606,856	25,764
한국전력	592,571	62,140
한화	492,626	23,041
SK이노베이션	458,106	32,831
현대모비스	361,984	23,858
SK하이닉스	300,588	135,548
LG디스플레이	275,329	27,409
CJ	269,042	14,375
LG화학	257,897	30,037
KT	231,632	15,121
한국가스공사	217,667	10,011
S-Oil	203,718	14,522
현대제철	190,804	14,591
두산	178,851	11,934
현대건설	178,351	11,157
현대로보틱스	175,212	15,011
SK텔레콤	174,478	16,090
GS	162,985	20,513
롯데케미칼	159,253	29,129
신한지주	117,351	43,213
LG	116,272	21,160
KB금융	113,851	39,685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 (단위:억원)  
/자료=에프앤가이드

각각 19.2%, 86.1%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해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실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30조588억원, 영업이익은 3조28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각각 74.8%, 313.7%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도 매출액 36조2298억원, 영업이익 16조 4114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20% 이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도현우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 양호한 서버 D램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고대역폭메모리 HBM 등 고부가가치 D램 수요가 좋다”며 반도체 호황은 올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10-1 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현대차(매출액 96조6901억원·영업이익 5조511억원), SK(91조1771억원·5조

9376억원), POSCO(60조8374억원·4조 9287억원), LG전자(60조6856억원·2조 5764억원), 한국전력(59조2571억원·6조 2140억원), 한화(49조2626억원·2조 3041억원), SK이노베이션(45조8106억원·3조2831억원), 현대모비스(36조 1984억원·2조3858억원), LG디스플레이(27조5329억원·2조7409억원), CJ(26조9042억원·1조4375억원), LG화학(25조7897억원·3조37억원), KT(23조 1632억원·1조5121억원), 한국가스공사(21조7667억원·1조11억원), S-Oil(20조3718억원·1조4522억원) 등이다.

◆‘10-1 클럽’ 기업의 비밀은 혁신과 투자

이들 기업의 성장 동력은 ‘미래투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2016년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의 투자액이 42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이는 매출이 전년 대비 0.37% 감소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늘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올해는 ‘10-1 클럽’에 속한 27개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07% 오를 것으로 전망돼 R&D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R&D투자액이 12조2300억원(127억달러)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의 7%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글로벌 IT기업인 아마존(161억달러), 알파벳(140억달러), 인텔(127억달러) 다음에 한국기업이 이름을 올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은 LG전자(48위·31억달러), 현대차(77위·17억9000만달러), SK하이닉스(85위·16억2000만달러)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재계 신년사 화두도 ‘혁신과 투자’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LG, SK 등 재계 수장들 모두 신년사에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 이들 기업의 질주가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올해 새로 ‘10-1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두산, 현대로보틱스, 대우조선해양이다. 지난해 ‘10-1 클럽’에 속했던 기아차와 삼성화재, 효성, 대한항공 등은 입학 부진으로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영화 한 편 10초에 다운... 갤럭시 두뇌 '엑시노스 9810' 양산



독자개발 3세대 CPU 코어 탑재  
최고수준의 4세대 LTE모뎀도  
3차원 스캐닝 정확한 안면인식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차세대 모바일AP '엑시노스9 (9810)' 제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초고속 모뎀에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연산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양산에 나선다. 이번에 생산되는 모바일 AP는 올 상반기 공개되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에 탑재돼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세대 10나노 핀펫 공정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모바일 AP '엑시노스9(9810)'을 양산한다고 4일 밝혔다.

AP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엑시노스9에는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중앙처리장치(CPU) 코어와 업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모뎀을 탑재했다.

소프트웨어는 최대 2.9GHz로 작동하는 고성능 빅코어 4개와 전력효율을 높인 리틀코어 4개가 결합된 옥타 코어 구조로 최적화돼, 각 코어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엑시노스9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딥러닝 기능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류한다. 또 3차원(3D) 스캐닝이 정확한 안면인식을 지원하고 별도의 보안전용 프로세스 유닛으로 안면, 홍채, 지문정보 등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엑시노스9810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Cat.18 6CA(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 기반 모뎀이 탑재됐다.

업계 최고 수준인 1.2G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200Mbps의 업로드 속도를 구현한다. 1.2Gbps는 1.5GB 용량의 HD급 화질의 영화 한편을 10초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다.

CA는 '주파수 집성' 또는 '주파수 묶음'이란 뜻의 이동통신 기술로, 흩어져 있는 여러개의 주파수를 하나의 광대역 주파수처럼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와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다. 6CA는 6개의 주파수를 묶는다는 의미다.

이 밖에 4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해 속도를 높인 '4x4 MIMO' 다중안테나 기술과 와이파이, 블루투스4와 같은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eLAA 기술 등도 적용했다.

엑시노스9810은 저조도 이미지 촬영과 4K UHD 영상 녹화 등 멀티미디어 기능도 강화됐다. 전력효율이 높은 지능형 이미지 처리 방식을 통해 실시간 아웃포커스 기능과 야간 촬영 시에도 고품질의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0fps의 4K UHD 비디오 녹화와 재생이 가능하고, 10bit의 HEVC(고효율 동영상 압축 표준·H.265)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 동영상 코덱인 VP9을 지원해 표현 가능한 색상의 수가 1600만 개에서 10억 개 이상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마케팅팀 장 허국 상무는 "엑시노스9810은 독자 기술로 개발된 CPU와 최고 속도의 모뎀 기술, 지능형 이미지 처리 기술 등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며 "혁신적인 성능과 풍부한 기능 지원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 컴퓨팅 기기, 오토모티브 등 AI 시대에 최적화된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엑시노스9810은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임베디드 기술 제품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글로벌 고객들에게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삼성전자, '버라이즌'에 5G 통신장비 공급

가정용 단말기·네트워크 설계 등

삼성전자는 4일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5G 기술을 활용한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 서비스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자체 통신규격인 5GTF(5G Technology Forum) 기반의 통신장비, 가정용 단말기(CPE), 네트워크 설계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버라이즌은 2018년 하반기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 세계 첫 번째 상용 서비스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전역 11개 도시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중 첫 상용 서비스 예정 도시인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7개 도시에 통신장비와 단말기를 공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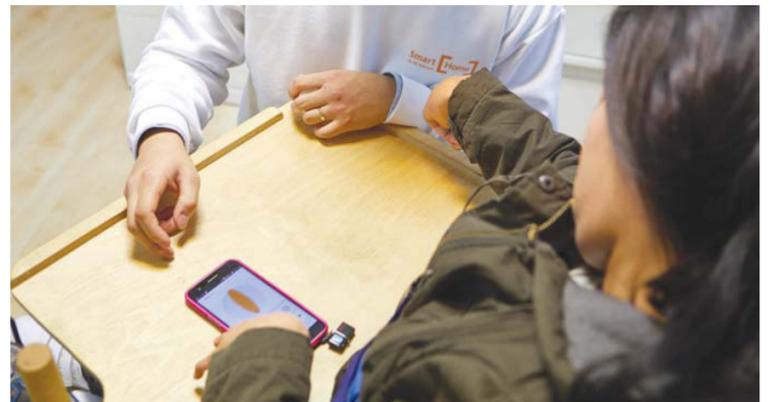
버라이즌은 향후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서비스가 미국 전역 3000만 가구로 확대되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서비스는 초고속 이동통신서비스를 각 가정까지 무선

으로 직접 제공하는 기술로 광케이블 매설 공사나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이 필요 없다. 수개월까지 걸리던 서비스 준비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도 기가비트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주로 주택에 거주해 광케이블을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전체의 10% 내외 수준으로 5G 고정형 무선 액세스 서비스를 통한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으며, 해당 분야에서 전 세계 기술과 시장 선도를 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모델이 SK텔레콤의 '스마트홈 드림하우스' 사업에 적용된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 SKT, 장애인 생활공간 거주편의 개선

SK텔레콤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거주 편의를 개선한 '스마트홈 드림하우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홈 드림하우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따뜻한동행'이 선정한 10곳에 연내 구축된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홈 서비스를 적용한 스위치·가스차단기·인공지능 스피커 등 생활 편의 IoT 연동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취지에 동감한 린나이(보일러), 하츠(레인지 후드)도 가전기기를 함께 제공한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침대에 누워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가스차단기를 열고 잠그는 단순한 일상생활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가전기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조원태, 조종사 노조 만나 '노사협력' 당부

(대한항공 사장)

새해 현장중심 소통행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올해 처음으로 조종사노조 관계자를 만나는 등 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새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조 사장은 4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김성기 조종사노조 신임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과 만나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최대영 일반노조 신임위원장과 의 상견례 이후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올해 조 조양호 회장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현장경영'을 강조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면서 조 사장 역시 임직원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특히 조 사장은 연초 안전운항을 위해 전담하는 직원들을 찾아 간식을 전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정비 격납고와 종합통제센터, 램프지역 및 화물현장, 승무원 브리핑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어 2일에는 부산에 위치한 테크센터 시무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방통위, KBS 보궐이사 김상근 목사 추천

한국방송공사(KBS)의 보궐이사에 김상근(78) 목사가 추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된 강규형 전 한국방송 이사의 자리에 김 목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이사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김 목사가 보궐이사로 오르게 된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김 목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 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계 원로다.

현재 KBS 이사진 구성은 야권이 추천했던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야 5대 5대다. 김 목사가 임명되면 11명의 이사 가운데 여권 추천이사가 6명, 야권 추천이사가 5명이 돼 여야 구조가 뒤바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추천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정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상근 목사

한편, 이날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의 해임안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김나인 기자

## 창립 60주년 'KCC' 기념 엠블럼 공개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KCC가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4일 공개했다.

이번 기념 엠블럼은 동양에서 한 생명의 완성주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갑자(甲子) 숫자 60에 무한대 기호(∞)를 결합한 형태다. 대한민국 근, 현대사 60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성과를 기념하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여 글로벌 일류기업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사내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념 엠블럼은 디자인팀 김혜운 대리의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했다. KCC CI인 블루 컬러와 레드 컬러를 사용해 기업 브랜드와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아이디어였다.

KCC는 기념 엠블럼을 올 한 해 동안 TV 및 신문광고, 홈페이지, 카탈로그, 명함, 각종 판촉물 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60주년 의미를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정몽규 KCC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와 해외시장 개척을 강조한 바 있다. 빅데이터 확보와 자동화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공장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등에 신규 생산 법인을 설립해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KCC는 지난해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선박용 도료 점유율 2.5%를 기록했다.

/임현재 기자 ih@

# M&A 전문가 박정호, 新 먹거리 찾아 ‘나홀로 CES행’

(SK텔레콤 사장)

이통사 경영자 중 유일하게 참석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등  
사업제휴·교류 등 협력방안 모색



의 비즈니스 미팅에도 나설 예정이다.

“혼자서는 1등을 할 수 없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상호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 신사업과 새로운 파트너회사들에 목말라 하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 동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8’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는 9일부터(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에 핵심 임직원들과 함께 참가해 주요 부스를 둘러보고 글로벌 업체들과

가전 전시회인 CES는 가전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카,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등 전세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기술 경연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가전과 IT의 융합 흐름도 엿볼 수 있다. 세계적인 가전 기업, IT, 자동차 제조사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들과의 사업 제휴나 교류 등을 타진할 기회도 마련된다.

올해 CES는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불참한다. 대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나홀로’ CES 행을 선택했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서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인프라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지난해 열린 ‘CES 2017’도 참석한 박정호 사장은 ‘개방·협력’을 강조하며 삼성전자, 인텔,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하며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려진 박정호 사장이 이번 CES 현장에서 ICT 관련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 협력 방안을 타진하며 ‘글로벌 뉴 ICT’의 새 판 짜기를 주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정호 사장은 SK그룹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한국이동통신 인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서 성과를 보이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 사장은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참관 당시 제스 황 엔비디아 회장을 만난 이후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CES에 불참하지만 오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올해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CES는 불참하기로 했다”라며 “기술 동향 등을 알아보고 위해 사업부서 실무 임원진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각 사업부 실무진 10여명 안팎이 CES를 참관할 예정”이라며 “실무진들이 기

술 동향과 사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

## 지난해 최다판매 기념 할인혜택 ‘풍성’

### 도요타코리아

도요타코리아가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념해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도요타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1월 한 달간 고객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요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인 1만1700여대를 기록했다.

‘스마트 밸류 프로그램’은 차량의 잔존 가치를 미리 보장받아 월 부담금을 최소화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 구매 시 보장받은 가격으로 반납, 금융 제약약 또는 전액 상환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

다는 게 도요타의 설명이다.

대상 차종은 아발론, 프리우스, 라브4 가솔린, 라브4 하이브리드, 시에나이퍼 선수금 30%를 내면 3년 후 차종 별로 52~58%의 잔존가치를 보장받는다.

또 계약 종료 후 재구매 시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라브4 하이브리드의 경우 58%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도요타 오너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현금 및 타 금융 프로모션과는 중복이 불가능하다. 라브4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에게는 더블FMS쿠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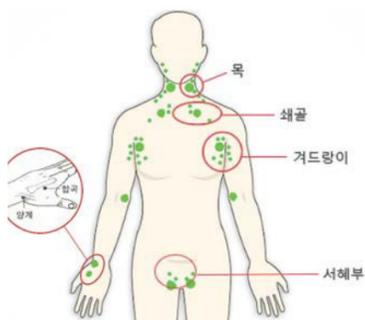
## “겨울철, 마사지로 뇌졸중 예방하세요”

### 바디프랜드·메디컬R&D센터

바디프랜드와 자사 메디컬R&D센터가 겨울철 자주 발병하는 뇌졸중 예방 마사지법을 4일 공개했다. 메디컬 센터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전문의가 안마의자의 의학적 효과를 실험하는 하면서 관련 특허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혈류의 속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또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이물질이 쌓인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혈액순환은 간단한 지압마사지로 가능하다.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직각을 이루도록 세우면 엄지 뒤쪽으로 힘을 두 개가 돌출된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혈이 양계혈이다. 합곡혈은 엄지와 집



계손가락의 뿌리가 만나는 손등 안쪽 부위를 말한다. 이 두 혈을 반복해 지그시 눌러주면 혈압 안정에도 도움 된다.

또 다른 마사지법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 림프 마사지는 림프액의 원활한 순환으로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이 정체 없이 흐르도록 돕는다. /임현제 기자 ihj@

“우리 게임사가 달라졌어요~”

## 신작으로 주도권 잡고 기업문화도 바꾼다

‘빅3’ 대형게임사 등 대작 출시  
올 모바일 게임시장 선점 나서  
유연근무제 등 근무환경 개선도

게임업계가 2018년에도 모바일 게임 전성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새해부터 ‘빅3’로 꼽히는 대형 게임사를 포함해 중견 업체까지 모바일 게임 대작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밤낮없이 몰두하며 일하는 기업 문화도 근무환경 개선안 등을 통해 탈바꿈할 전망이다.

◆넥슨·넷마블·엔씨 ‘빅3’ 새해 모바일 신작 정면대결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넷마블·엔씨·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가 연초부터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리니지’ 등 지식재산권(IP)에 강점이 있는 엔씨소프트는 올해 ‘리니지2M’, ‘아이온 템페스트’, ‘블레이드앤소울2’ 등을 내놓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리니지M’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도 기존 IP의 이용자 기반을 흡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지난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게임즈는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이카루스M’ 등을 선보이며 시장을 확대한다. 특히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은 외부 IP를 이용했지만 완성도 높은 기술을 적용해 기대작으로 부상했다.

넥슨은 이달에만 인기 만화 IP를 활용한 ‘열혈강호M’, ‘야생의 땅: 듀랑고’ 등 모바일 게임 2종을 출시한다. 열혈강호M은 오는 11일, 야생의 땅: 듀랑고는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빌, 퍼블리시 등 중견 게임사의 신작도 있다. 게임빌은 오는 12일 개발 인력



올해 출시 예정인 ‘리니지2M’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100여명을 투입한 ‘로열블러드’ 출시를 앞두고 있고, 퍼블리시는 자사 인기 게임 ‘검은사막’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인기 만화 출판사 DC코믹스의 IP를 기반으로 한 ‘DC언체인드’를 내놓는다. 카카오키프의 정식 후속작인 ‘그랜드체이스 포 카카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밤낮 없던 근무환경, 새해부터 바꾼다

그간 말쑥했던 기업문화도 대형 게임사 위주로 바뀐다. 넥슨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운영정책에 ‘상당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도입한다.

넥슨 관계자는 “이용자와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상담사에게 욕을 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면 최대 30일간 게임이동을 제한한다.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운영정책 도입을 통해 상담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1차로 경고조치와 함

께 상담이 중단된다. 재발시 2차로 3일간 게임이용 제한 제재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욕설, 성희롱, 모욕, 인격침해 등이 반복되면 게임이용이 7일간 제한된다. 제재 누적일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직원이 근무 시간과 일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우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유연출퇴근제(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범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유연 출퇴근제가 도입되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개인이 출근 시간을 선택해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한 주의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다른 주의 근무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체계화하는 등 게임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근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넷마블은 지난해 2월부터 야근과 휴일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실시했다. 지난해 게임 업계는 강도 높은 철야와 휴일 근무 등으로 직원이 돌연사,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슈가 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의 경우 기존 기업과 달리 역사가 짧고, 개발자들이 신작 개발에 밤낮없이 몰두하는 문화가 남아있어 근무환경, 기업문화 등이 뒤쳐진 부분이 있다”며 “대형 게임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게임 산업도 점차 근무환경 개선 등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 CJ헬로, 차세대 케이블TV 서비스 개시

(알래스카)

CJ헬로 헬로TV가 차세대 케이블TV(UI/UX) 서비스 ‘알래스카’를 전국 23개 케이블방송(SO) 권역에 2018년 새해부터 전면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헬로TV 고객들은 알래스카 UI(사용자화면)를 이용할 수 있고, 헬로TV는 데

이터 기반 케이블TV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알래스카는 케이블TV가 개척해야 할 ‘위대한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CJ헬로는 4개 사업부서와 외부 빅데이터 분석가, UI·UX전문가, AI전문가, 인지과학자

등 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2년여에 걸쳐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우선 TV화면(UI)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스마트 심플’로 변화한다. 고객 분석을 바탕으로 메뉴와 콘텐츠 구성을 변경한다. ‘가로 UI’ 디자인을 도입해 대형 TV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온다.

메뉴 간 이동도 쿼브 브라우징, 하위메뉴 미리보기 기능 등을 도입해 간편해졌다. /김나인 기자

# 인사혁신으로 조직안정... 올 종합금융그룹 도약 다짐

**2018 따뜻한 금융 행복한 한국**

## 손태승 우리은행장

임원 17명 교체... 계파갈등 없애 글로벌 네트워크 300개→500개 예보지분 매각 '완전민영화' 추진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018년을 '종합금융그룹 도약의 해'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손 행장은 우리은행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동시에 실적·주가를 끌어 올려 금융지주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완전 민영화'를 통해 기업가치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 ◆ 4년만에 다시 종합금융그룹 도약

손태승 행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내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다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됐다가 2014년 4차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권),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핵심 계열사를 분리 매각하면서 지주사를 해체하고 우리은행으로 흡수됐다.

당시 은행 체제로 바뀌면서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이 연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주사 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KB·하나·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지주사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도 꼽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과점주 체제의 민영화까지 달성한 만큼 금융지주 전환에 속도를 냈으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목을 잡혔다.

이에 손 행장은 취임 후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내정 직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행장이 돼서 계파 갈등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손 행장은 지난달 22일 취임 직후 임원 22명 중 17명을 교체하며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임원을 같은 수로 임명했던 '동수(同數) 원칙'을 깼다.

조직 안정이란 초석을 다진 후 종합금융그룹 달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손 행장은 내정 직후 "오는 2020년에는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비은행 계열



사를 갖춰야 하는 만큼 자산운용사 등 규모가 작은 금융사부터 단계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디지털·글로벌 강화... '완전민영화'도 주목

손 행장은 2018년 종합금융그룹 달성을 위해 5대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보 ▲현지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차별화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 ▲서민금융 지원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완수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제시했다.

먼저 은행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디지털금융 확대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를 출시하고 '위비 플랫폼'을 완성한 바 있다. 올해는 유닉스 서버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손 행장의 오랜 글로벌 경험을 토대로 '해외 영토 넓히기'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4년 글로벌사업본부 집

행부행장에 오른 뒤 글로벌그룹장, 글로벌부문장을 맡으며 현지 금융회사를 M&A 하는 등 우리은행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2014년 말 184개에서 지난해 말 301개까지 확대됐으며, 내년 말에는 500~5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18.43%)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예보가 잔여 지분을 매각하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올라야 한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1만5750원 수준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미회수분을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주가(1만4300원)는 웃돌고 있으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실적 상승 등을 통해 주가를 더 안정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안타증권 박진형 연구원은 "우리은행은 경상이익 개선 속도가 가장 크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이익모멘텀을 가진다"며 2018년 예상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13.2%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은행은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과 지주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코리안리, 내년 6월 스위스 현지법인 만든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지역 인수규모 2025년 3억달러 이상 증대 기대

코리안리재보험은 유럽시장 수재 증대를 위해 스위스 취리히에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유럽은 현재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전세계 보험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스위스는 '유럽 재보험산업의 메카'로 자국 내 거점을 마련한 재보험사만 무려 59개사에 달한다.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등 유럽 주요국 언어 구사 능력 및 재보험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코리안리는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 관련 오는 2019년 6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한다. 유럽 내 현지 영업 강화를 통해 독일·프랑스 등 유럽지역 인수 규모를 현재 2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5년 3억 달러 이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지화를 통해 유럽 내 고객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언더라이팅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코리안리는 영국 로이즈 현지법인과 함께 유럽 내 2개의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런던 로이즈 현지법인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로이즈의 국제보험시장 허브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당분간은 기존 로이즈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 지분 투자 방식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인가 신청을 한 코리안리 중국 상해 지점의 경우 아직까지 중국 금융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 코리안리를 포함해 지난 2016년 6월 중국 보험감독위원회 심사를 받은 회사들 모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보통 인허가 승인까지 2~3년 이상 소요된다"며 "오는 4월 이후 중국 보험회 주석자리가 공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인가 승인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중 지점 설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올해 말레이시아 영업 활성화를 위해 라부안 지점,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두바이 지점을 설립할 바 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번 스위스 현지법인 설립 추진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영업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전세계에 걸쳐 영업거점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NH농협銀, 윤리경영 실천 결의

NH농협은행은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개인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소 단위로도 별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투명한 정도경영은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농업·농촌 및 금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과 전 임직원을 대표해 이성섭 개인고객부장(오른쪽)이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IBK기업銀, 中企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중기중·신보와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과 중기중앙회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원·부자재 공

동구매 중소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구매기업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과 판매협동조합을 위한 전용통장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 BNK부산銀, 금리 2.2% 온라인 예금 특판

BNK부산은행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최대 2.2%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e-푸른바다 정기예금'은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12개월 이상 23개월까지는 2.0%, 24개월 이상 35개월까지는 2.1%, 36개월 이상 60개월까지는 2.2%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산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 부산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BNK e-스마트 정기예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년제 가입 기준 2.0% 금리를 적용하며 스마트폰과 부산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예금 가입액은 1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다.

BNK부산은행 이선영 디지털금융부장은 "새해를 맞아 부산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온라인 전용 정기예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부산은행의 모바일 전문은행 '썬뱅크'를 통해서도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 오익환 "기본 충실한 경영에 초점 맞춰야"

(DGB생명 사장)

DGB생명 '스케일업' 혁명 당부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지난 3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한 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객감동 및 정도영업의 생활화로 DGB생명의 새로운 '스케일업(Scale up)' 혁명을 당부했다.

오 사장은 이날 서울 본사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하고

2018년 새출발을 다짐했다. 그는 "DGB생명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영업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라이프 파트너라는 확고한 비전을 목표로 '고객에게 주는 가치 극대화'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DGB생명만의 고객감동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선 올해 DGB생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사령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봉준 기자

# 계열사 지원 배제... 그룹후광 따른 등급 '뺑튀기' 막는다

## 개별기업 독자신용 평가의 명암

### ㉠ 제2의 한진해운 사태 막는다

#### 신용평가사 '뒷북 강등' 지적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작아"

지난 2016년 9월, 한진해운 신용등급은 9단계나 하락하면서 결국 부도를 나타내는 최하위 'D등급'으로 추락했다. 이 회사 신용등급은 이전 4년 동안 A-(2011년 말)에서 BB+(2015년 말)로 4단계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진해운이 2011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2014년과 2015년에도 영업이익률이 0.5%를 밑돌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용평가사의 '뒷북 강등'이란 지적이 적잖았다.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 모기업 한진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한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BB+ 신용등급을 받고 회사채를 산 투자자들은 적잖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올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재무상환 능력만 따져 매기는 '자체신용도'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뺑튀기되다가 그룹의 꼬리 자르기로 등급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 ◆대기업 계열사 신용도 고평가?

4일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계열 통합 신용도가 높고 계열 통합 신용도 대비 소속

계열사들의 자체신용도 차이가 큰 SK(64.7%), 현대자동차(69.2%), 삼성(80.0%), LS(66.7%) 그룹의 등급 상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SK그룹은 전체 17개사 중 11개사로 상향 조정된 기업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13개사 중 9개사, 삼성은 5개사 중 4개사, LS는 3개사 중 2개사가 상향됐다. 이외에도 엘지(7개사), 롯데(4개사), 한화(4개사)그룹 등의 계열사도 신용 거품이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삼성, LG, KCC 그룹에서는 2단계 상향된 계열사도 있었다. 두산그룹은 1개사가 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별로는 계열과의 사업·재무적 긴밀성이 높은 호텔(66.7%), 조선(50.0%), 종합건설(47.6%), 자동차부품(44.4%) 등의 등급 상황 비중이 높았다.

나이스신용평가 최중기 기업평가 1실장은 "계열의 통합적인 신용도가 높아 지원능력이 우수하며, 개별 계열사의 자체적인 신용도와 계열의 통합적인 신용도 간의 차이가 큰 회사가 다수 존재할수록 그룹의 등급 상황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재계는 무더기 신용강등을 걱정한다. 신용등급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향후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들은 당장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신용평가 업계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신용평가 김용건 실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별 회사의 자체신용도가 공개되면

신용도에 대한 시각차가 부각될 수 있다"면서 "이 정보는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김상만 연구원은 "그룹별로 보면 SK, 현대차, LG 등 국내 굴지의 초대형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들에 대한 등급조정 비중이 높다. 하지만 등급조정이 된 경우에도 대부분(92.1%)의 경우 한 등급조정에 그쳐 초우량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도 개별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와 그룹의 통합적인 신용도 간에 (그룹의 후광효과로 인한) 간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신용의존성이 급격히 변한 경우는 경성적인 상황이 아닌 인수합병(M&A) 이벤트, 계열의 부실기업 지원 중단 사태 발생 등의 경우에 나타났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은 2016년 8월 SK 계열로의 매각추진에 따른 사업적 중요성 저하 및 매각 가능성 증대로 신용의존성이 하락했다.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은 포스코플렉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유사시 (주)포스코의 계열 지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평가에 2015년 7월 신용의존성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원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추세여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체신용도를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나친 줄세우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하지만 자체 신용도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기만 한다면 회사채 시장의 신뢰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려 장기적으로 시장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그룹별 신용등급 조정 수준)

그룹명	1등급 하락	등급 조정 없음	1등급 상승	2등급 상승	등급 상승 비중	합계
케이티		1	1		50.0%	2
에스케이		6	11		64.7%	17
현대자동차		4	9		69.2%	13
롯데		7	4		36.4%	11
삼성		1	3	1	80.0%	5
엘지		6	7	1	57.1%	14
신세계		3	2		40.0%	5
포스코		4	1		20.0%	5
지에스		4	3		42.9%	7
씨제이		4	1		20.0%	5
케이씨씨		1		1	50.0%	2
대림		3			0.0%	3
엘에스		1	2		66.7%	3
한라		1	1		50.0%	2
한화		7	4		36.4%	11
세아		3			0.0%	3
현대산업개발		1	1		50.0%	2
한솔		2	1		33.3%	3
현대중공업		2	1		33.3%	3
코오롱		2			0.0%	2
두산	1	3	1		20.0%	5
태영		2			0.0%	2
한진		2			0.0%	2
이 외 그룹	1	16	5	0	22.7%	22
그룹소계	2	86	58	3	40.9%	149
합계	2	177	58	3	34.5%	240

\*2017년 11월 말 NICE신용평가 회사채 및 기업신용등급 기준 (공기업, 지주회사 제외 기준).

\*\*NICE신용평가 산업위원 평가 대상 산업 기준.

## NH투자증권-포인트엔지니어링

### 코스닥 상장 주간사 계약 체결

NH투자증권은 포인트엔지니어링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코스닥상장 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포인트엔지니어링은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1997년 설립되어 LCD 및 반도체의 주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회사다. 2016년 42억원의 영업이익과 3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2018년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예비실사를 시작으로 상장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인트엔지니어링 CFO인 최인준 이사는 "고객들은 주문 증가로 LCD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규로 확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매출 활성화로 2018년에도 꾸준히



NH투자증권 정영채 IB사업부 대표(오른쪽)와 포인트엔지니어링 안범모 대표가 상장 대표주간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해 이를 바탕으로 연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조광재 상무는 "회사의 꾸준한 성장성과 안정적인 실적을 감안할 때 금년 중 좋은 조건에 상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 미래에셋대우

### 연금자산 10兆 돌파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기준 증권업 최초로 퇴직연금 7조 6911억원, 개인연금 2조 5331억원으로 연금자산 잔고 10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말 대비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이 각각 1조 1294억원, 4433억원 증가한 수치로 증권업계에서 연금자산으로 1위 규모다. 연금자산 10조원 돌파는 미래에셋대우가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으로 고객에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최

초의 랩카운트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 배분 퇴직연금'을 출시하는 등 균형잡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자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역량을 강화해 온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최근 1년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서 적립금 상위 10개사 중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남근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장은 "앞으로도 미래에셋대우는 준비된 연금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 수도권 마수걸이 분양... 1만2310가구 풀린다

## 강남·과천·김포·하남 등

새해 마수걸이 분양이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김포, 하남지역의 물량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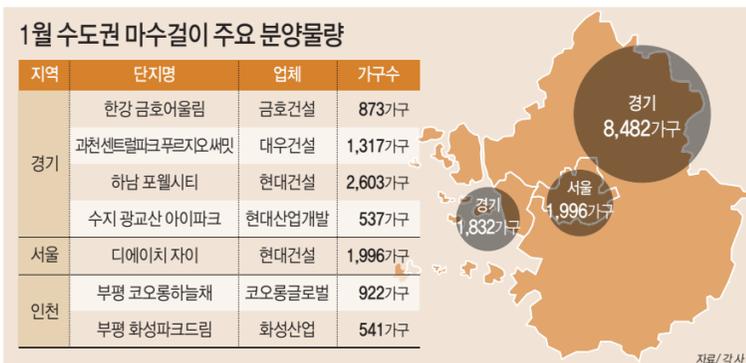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14곳, 1만23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곳, 8482가구 ▲서울 1곳, 1996가구 ▲인천 3곳, 1832가구 규모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금호건설이 포문을 연다.

금호건설은 이달 초 한강신도시 생활권인 김포 양곡택지지구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에서 '한강 금호어울림' 2개단지 59~84㎡, 873가구를 분양한다. 한강신도시 생활권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900만원대로 낮췄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에서는 이달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 단지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



#### 1월 수도권 마수걸이 주요 분양물량

지역	단지명	업체	가구수
경기	한강 금호어울림	금호건설	873가구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씨밋	대우건설	1,317가구
	하남 포웰시티	현대건설	2,603가구
	수지 광고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37가구
서울	디에이치 자이	현대건설	1,996가구
	부평 코오롱하늘채	코오롱글로벌	922가구
인천	부평 화성파크드림	화성산업	541가구

59~159㎡, 1317가구 중 57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4호선 과천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된 역세권 단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수지 광고산 아이파크' 59~84㎡ 537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하남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이 이달 경기 하남 감일지구 C2블록, C3블록, B6블록에서 '하남 감일 포웰시티' 73㎡~152㎡, 2603가구를 분양한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개포8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포문을 연다. 현대건설과 GS건

설은 이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가칭)'를 분양한다. 59~127㎡, 1996가구 중 16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이달 인천 부평 부개2동 부개인우구역을 재개발한 '부평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한다. 34~84㎡, 922가구 중 5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반경 1km내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7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위치한 트리플역세권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KB증권

### '모바일스타론' 서비스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스타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타론은 고객이 증권계좌에 예약된 자산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의 여신기관

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 접속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어 필요한 시점에 자금신청이 원활하게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온 했다.

KB증권의 '모바일스타론'은 MTS 앱인 'M-able'에 스타론 메뉴를 신설,

모바일 시스템을 갖춘 제휴 여신기관 상품(KB손해보험, NH캐피탈, DGB캐피탈)을 편입해 PC접속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타론 계좌현황 조회 및 대출가능금액 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문호 기자

# 이랜드, 재무개선 작업 가속도 상반기 中 1兆 유치... 퍼즐 맞춘다

부채 비율 200% 이하 예상  
투자 유치구조 새롭게 다져



지난해 1차 재무구조를 개선한 이랜드가 올해에는 자본 건설화 작업에 집중한다.

이랜드그룹은 이랜드월드가 진행 중인 1조원 자본유치 관련 현재까지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에서 2000억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8000억원은 투자 유치 구조를 새롭게 해 올 상반기 중 마무리 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해 12월 29일 1000억원을 납입했고, 나머지 금액도 이달 이내 납입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총 2000억의 자본이 유입되면 이랜드그룹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모던하우스와 티니위니 매각, 프리 IPO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완료하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완료

된 상태에서 작년 완성되지 못한 1조 퍼즐은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본유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랜드는 지난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1조 자본유치 작업을 동시에 마무리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으나 투자자와 마지막 협상 중 미세한 부분에서의 견 차이를 보였다.

이랜드는 기존의 투자희망자를 포함해 투자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

자들에게도 다양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랜드 고위 관계자는 "이랜드그룹의 투자 파트너 중 하나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향후 추가 투자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이 이랜드리테일 프리 IPO에 이어 1조원 자본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룹의 자금 조달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1980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이랜드는 국내외 패션과 유통부문의 높은 수익률과 성과에 힘입어 자금조달을 채권발행이나 은행권 차입 등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 시장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차입금 구조와 운영방식을 버리고 계열사별 성장과 자본 확충으로 '무차입 경영'을 지향하는 자본 구조를 구축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자회사별 책임 및 독립경영시스템도 강화한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1조원 자본유치를 통해 지주회사 체계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해외명품대전' 최대 70% 할인

롯데백, 10일부터 4개점포서 진행  
졸업·입학 축하기념 특설매장 운영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엘 멀버리 매장에서 고객 2명이 상품을 보고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오는 10일부터 본점을 시작으로 잠실점, 부산본점, 대구점 등 4개 점포에서 제 19회 '롯데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할인 행사로 총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졸업·입학 축하 기념 특설 매장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인다.

행사에서는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GF)인 겐조, 소니아리키엘, 엘리든 등 총 12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패밀리 세일' 행사를 본점 행사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총 50억원의 물량을 선보이며,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소니아리키엘 브랜드에서는 코트 등의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겐조에서는 재킷 등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내놓는다. 또 '엘리든', '엘리든 스튜디오', '엘리든 플레이' 등 해외 럭셔리 브랜드 직매입 편집샵에서는 이브살로몬, 메이트, 애드 브랜드 등의 아우터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준다.

본점 행사장에서는 졸업과 입학 축하하는 '몽블랑 스페셜' 특설 매장을 선보인다. 백팩, 클러치백 등의 상품을 국내 최초로 전시 및 판매하며 무술년 황금개띠해를 맞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가

방 액세서리인 '피피팩잡'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한다.

명품시계 매니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럭셔리 워치 브랜드인 '크로노스위스'도 본점 행사장에서 국내 최초로 행사를 진행하고 전 품목을 30%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에서는 에트로, 멀버리, 비비안웨스트우드, 스튜어트 와이즈먼 등 총 200여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가 참여해 아우터, 핸드백, 슈즈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운영진 롯데백화점 해외패션 선임바이어(Chief Buyer)는 "해외명품 상품군은 최근 패션업계의 저성장 기조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기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럭셔리 시계, 주얼리 브랜드 특설 매장을 기획했다"며 "기존 백화점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 행사를 준비한 만큼,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계약재배 확대 운영... 농가 상생 가속화

CJ프레시웨이

판로개척 어려운 농가 손길  
유통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

CJ프레시웨이 2018년 계약재배 지역별 품목 현황



CJ프레시웨이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계약재배를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전국 11개 지역, 1000여 농가와 손잡고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올해 계약재배 면적은 축구장 2500개에 달하는 1800ha 규모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곳에서 약 4만t의 농산물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구매금액은 약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평야의 중심인 익산시에서는 쌀을 계약재배한다. 강릉은 배추, 제주에서는 무 등을 재배하는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확대 운영한다. CJ프레시웨이는 계약재배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 원년인 지난 2015년 119억원으로 시작해, 매년 2배 이상 늘어나 현재는 530억원으로 원년보다 5배 늘었다.

CJ프레시웨이가 계약재배를 매년 늘리는 이유는 농가와의 상생 때문이다. 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안정적인 판로확보인 점을 파악해, 한 해 동안 유통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을 전량 계약재배를 활용해서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물량 확보로 상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재배를 진행함으로써 품종선별부터 가공 및 상품화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상품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농산물 유통단계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유통비용

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유통은 농가-수집상-공판장(경매)-제조사(제분과정)-CJ프레시웨이 등 5단계를 거치는 데 반해 계약재배의 경우 농가-지역 농업법인-CJ프레시웨이 등 3단계만 거치면 된다.

CJ프레시웨이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익산시 황등면의 서상권씨는 "계약재배를 실시하기 전에는 제값을 받기는커녕, 가을에 재배한 쌀을 절반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계약재배를 시작한 후부터 판로 걱정이 없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롯데마트, 반려동물 '건강식' 지속성장

반려동물들에게도 '건강'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최근 3년간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상품군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애견들의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텐탈케어간식'의 매출이 2016년 30% 가량(30.1%) 늘어난 데 이어 2017년에도 5% 가량(4.8%)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애견간식' 매출의 경우 2015년까

지만 해도 '애견간식' 매출보다 적었으나 2017년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내며 애견간식 매출을 넘어섰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먹이용 간식을 구매하던 것에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생활과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간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묘용품도 애견용품과 유사한 트렌



드로 '고양이간식'은 지난해 12% 가량(12.3%) 매출이 감소한 반면 '고양이간식'은 무려 60% 이상(60.9%) 매출이 늘었다. 고양이 마약간식으로 불리는 차오츄르, 템테이션과 같은 브랜드 상품군들이 고양이간식 매출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 하이트진로, 알코올 사이드 '써머스비 애플'

칼스버그와 수입 계약... 판매 실시

하이트진로가 덴마크 맥주 1위 기업인 칼스버그(Carlsberg)사와 '써머스비(Somersby)'의 정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써머스비'는 알코올 도수 4.5%로 사과 발효주 베이스에 탄산을 첨가한 알코올 사이드(Cider)이다. 사과의 풍부한 향과 청량감이 특징인 '써머스비'는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세계 6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써머스비'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약 1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더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유통망

을 넓혀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써머스비 애플' (사진)은 330ml 병, 500ml 캔 2가지 타입으로 출시되며 전국 대형마트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 유흥주점에서 만날 수 있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하이트진로는 써머스비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며 "써머스비의 애플뿐만 아니라 블랙베리도 추가 출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코올 사이드는 나폴레옹, 클레오파트라, 뉴턴 등이 즐겨 마셨다는 유래가 있을 만큼 전 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군이다. /박인용 기자



# 롯데리아, 모바일 전용 '스마트 쿠폰' 론칭

스마트 오더에 쿠폰 저장 등 기능 추가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모바일 앱을 활용해 스마트 오더 및 매장 방문 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쿠폰' 기능을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매장 또는 원하는 매장에서 주문 및 제품 수령이 가능한 '스마트 오더' 기능에 롯데리아의 오프라인 이벤트 및 할인 쿠폰 저장 기능을 더해 이벤트 진행 날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쿠폰 기능을 추가했다.

롯데리아는 1월 스마트 쿠폰 론칭을 기념해 6월까지 구매가 가능한 통살치킨버거 1+1 쿠폰과 오는 11일 새우버거 1+1, 25일 핫크리스피버거 1+1 리아데이 쿠폰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후 1월까지



롯데리아가 모바일 전용 '스마트 쿠폰'을 론칭했다. /롯데리아에스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스마트 쿠폰은 모바일 주문 기능 스마트 오더에 쿠폰을 저장, 선물, 기부등의 기능을 추가 해 오프라인 이벤트의 한계에서 벗어나 롯데리아 이용 전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선보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 맛·기능은 물론 향수까지... '맷돌' 100억 판매신화

(익서기)

## 메트로가 만난 기업 이재우 홈밀맷돌 대표

공영홈쇼핑서 론칭후 100억 넘게 판매  
"1380도 가마서 사흘 구워 쇠만큼 단단  
가격 낮추고 꾸준한 개발로 경쟁력 ↑"

어린시절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콩 등을 맷돌에 갈던 모습을 지켜봤던 향수가 있다. 아이는 따라한다며 옆에서 고사리같은 손으로 맷돌에 콩을 한줌씩 넣고 힘겹게 돌리면서 재미있어하던 풍경이다.

믹서기, 녹즙기, 원액기, 주서기 등의 이름으로 저마다 브랜드를 달고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맷돌방식을 이용한 믹서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공영홈쇼핑에서만 지난해 82억원 어치가 팔려나가며 주금액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한 홈밀맷돌과 이재우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믹서기의 분쇄부분을 칼날이 아닌 맷돌과 절구 방식으로 대체한 아이디어 상품인 홈밀맷돌은 2015년 중반에 공영홈쇼핑 론칭과 함께 선보이며 해당 홈쇼핑에서만 100억원 넘게 판매되며 간판



홈밀맷돌 이재우 대표가 경기 안산 본사에서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품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음식을 갈때 금속 칼날을 사용하면 맛이 변질되고 색깔도 빨리 변하는 등 단점이 많아 옛부터 사용하던 맷돌과 절구를 믹서기에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맷돌은 세라믹, 장식, 규석, 알루미늄 등 10여가지를 섞어 1380도의 가마에서 사흘을 굽는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맷돌의 경도는 쇠만큼 단단하다." 이재우 대표의 설명이다.

첫 번째 홈밀맷돌 제품이 탄생한 것은 벌써 25년 가량이 됐다. 투박하던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기

능을 보완하다보니 네번째 제품이 나오고서야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맷돌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개발에 집중하다보니 제조단가도 만만치 않았다. 중소기업이라 마케팅이나 홍보도 쉽지 않아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팔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이 대표는 "재고가 1만개 이상 쌓였던 시절도 있었다. 사업을 접겠다고 마음도 먹었다. 그러다 아예 가격을 10만원 가량 내려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 때 공영홈쇼핑이 탄생하며 판매 채널도 확보하

게 됐다. 지금도 다른 TV홈쇼핑에선 수수료 때문에 이 제품을 파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때 공영홈쇼핑을 통해 하루에만 3억7000만원이란 최고 매출을 찍기도 했다.

전에 없던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고,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 지금은 다른 경쟁업체에서 유사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자연스럽게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특히 맷돌을 믹서기에 활용한 것이 40대 이상의 주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 충성 고객들까지 생기고 있다.

이 대표는 "홈밀맷돌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본 고객들이 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와 뿌듯하다"면서 "특히 서울 마포에 있는 고령의 한 소비자는 맷돌에 대한 향수가 있어 제품을 구입해놓고도 사용할 줄 몰라 본사로 전화가 와서 우리 직원 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설명을 해주고 오기도 했다"면서 웃었다.

이 대표는 현재 분쇄시간을 늘리는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한 5세대 홈밀맷돌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판매채널도 기존의 데이타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TV홈쇼핑 진출도 고민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호평받은 것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글·사진 안산(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맘스터치 미국 1호점.

/해마로푸드서비스

## 맘스터치, 버거의 본고장 美 시장 진출

국내 버거브랜드 최초 점포 오픈

맘스터치가 버거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코드(Concord) 지역에 미국 1호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매장은 콘코드 지역 내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돼 있어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상권에 들어섰다. 약 132㎡(약 40평) 규모, 40여개의 좌석으로 구성했으며 세계질내내 따뜻한 캘리포니아주의 날씨를 고려해 외부 테라스도 마련, 고객들이 다양한 매장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맘스터치 측은 버거 매장으로는 맘스터치가 유일해 현지 고객은 물론 관광객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도 눈에 띈다. 맘스터치 측은 버거의 본고장인 미국 현지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맞춤형 소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추가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국 1호점 오픈으로 맘스터치는 대만, 베트남에 이어 미국까지 모두 3개국 진출하며, 글로벌브랜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인용 기자

## 휴베나, 패키지 프린팅 사업 진출

휴온스글로벌 자회사

'원·부자재 토탈솔루션' 기업 도약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베나가 원·부자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휴베나는 상품 패키지와 라벨 등을 제작·판매하는 프린팅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유리용기 전문기업인 휴베나는 그동안 애플, 바이알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며 쌓은 노하우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 및 라벨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디자인, 제작 역량을 더해 '용기부터 패키지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부자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휴베나의 프린팅 사업부는 제약산업 외에도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업계의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고품질의 인쇄물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ps판 간헐식



ps판 간헐식 인쇄기 WJPS-660.

/휴베나

인쇄기(WJPS-660)'를 도입하는 등 최신 식·최첨단 프린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ps판 간헐식 인쇄기'는 기존 그라비아 인쇄 방식의 최대 단점인 고가의 동판 제작비와 불필요한 최소 생산량, 제한적 컬러를 보완한 제품이다. 비닐, 패키지, 라벨 등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다양한 인쇄물로 유연하게 제작해낼 수 있으며, 컬러 또한 7도까지 표현할 수 있어 더욱 선명한 컬러의 패키지를 선보일 수 있다. 또한 동판과 최소 수량(MOQ) 제작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나 다품종 소량 인쇄는 시제품 라벨, 패키지 제작 등 신제품 개발 시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시간과 비

용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제약사 외에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무 휴베나 대표는 "그 동안 애플, 바이알, 카트리지 등 의약품 유리용기의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프리필드시린지, PVC Hole, 고무전 등 다양한 제약관련 원·부자재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특히 1, 2차 포장재 프린팅 산업은 인쇄산업 중 성장세가 두드러진 분야로, 휴베나 프린팅 사업부는 최첨단 프린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빠른 제작 기간, 원가 경쟁력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장재 프린팅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비타민하우스, 이너뷰티용 제품 2종 출시

비타민하우스가 올해 미용·건강 분야의 주요 키워드인 '이너뷰티(inner beauty)'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가벼운 오늘'과 '풍성한 내일'이란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비타민하우스 측은 간편한 식품 섭취를 통해 내면에서부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 가운데 '풍성한 내일'은 비오틴과 비타민C가 첨가된 사과맛 저분자 피쉬콜라겐이 핵심 성분인 제품이다.

기존 생선콜라겐으로는 섭취가 불가능했던 영양분을 사과농축분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



오틴이 함유돼 머릿결과 피부에도 좋다.

또 다른 출시 제품인 '가벼운 오늘'은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소 클렌즈 제품이다. 몸을 가볍게 해주는 효소 클렌즈는 현미, 대두, 보리, 수수 등 국내산 곡물효소와 유산균이 1포에 1000mg 함유돼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환경개선 아이디어에 총 5억원 지원"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선정 단체 사업별 최대 3000만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 주도 환경 개선 확산을 위해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다음달 약정 체결일부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6개 분야

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자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16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 단체는 다음달 서울시 누리집과 개별 안내로 발표된다.

/이범중 기자 joker@

## 삼양사 '큐원 상쾌환' 패키지 리뉴얼 출시

삼양사는 한 형태숙취해소제품 '큐원 상쾌환'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디자인은 상쾌환의 브랜드 컬러인 푸른색을 활용해 하늘색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쾌환 패키지 전면에 인쇄된 모델 헤리의 의상과 포즈도 상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강조했다.

상쾌환은 삼양사가 2013년 12월 출시한 환(丸) 형태의 숙취해소 제품이다.

/박인용 기자

# INNOVATOR DANKOOK

결국 사람입니다.  
혁신이 아닌 **혁신가**를 길러야 합니다.  
끊임없는 진보의 열쇠를 제공하는 **이노베이터** 양성.  
단국대학교의 교육목표입니다.

수강신청부터 진로지도까지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AI CAMPUS**

글로벌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MODULE**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DESIGN THINKING**

## 단국대학교 2018학년도 정시 모집

- ▶ 접수기간 2018. 1. 7(일) 10:00 ~ 2018. 1. 9(화) 17:00
- ▶ 원서접수 입학안내 <http://ipsi.dankook.ac.kr>  
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http://uwayapply.com)
- ▶ 입학상담 죽전캠퍼스 입학팀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입학팀 (041)550-1234~8

※ 단국대학교는 죽전·천안 양캠퍼스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행복공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화, 평창올림픽 입장권 1400장 구매

### 성공개최 기원... 고객·이웃들에 기증

한화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스킨레이팅, 봅슬레이 종목 등을 포함해 1400여장의 입장권과 올림픽 기념품을 구매했다. 한화는 이 입장권을 고객과 이웃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장교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한화는 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 ㈜한화 이태종 대표이사, 국내 거주 외국인 장교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300장에 대한 기증식을 열었다.

국방외교와 군사·한국어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27개국 80여명의 외국인 장교들에게 입장권을 기증한 것이다.

이태종 대표는 "27개국에서 모인 외국인 장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한화그룹이 4일 더플라자호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희범 조직위원장, 외국인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기증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리카르도 에스코발 대령(페루), 이태종(주)한화 대표, 이희범 위원장, 굴람 알리 중령(파키스탄), 김주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바닛 하르톨고이 대령(몽골), 카즈벡 코소노브 중령(키르기스스탄). /한화그룹

소중한 경험을 친구, 가족,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당부했다.

한화는 또 구입한 입장권을 한화가 후원하

는 사회복지기관과 임직원들을 매칭(짝 짓기)해 함께 관람하게 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게도 올림픽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 두울장학재단 여대생 103명에 장학금

두울장학재단은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여대생 103명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여성 전문 장학재단인 두울장학재단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의 부인 박두을 여사의 유지를 기려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다.

박두을 여사의 유산을 중심으로 만팔인 이인희(사진) 한솔그룹 고문을 비롯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전 관장, CJ 손복남 고문 등 자녀들이 뜻을 모아 기금이 조성됐다.

설립 이후 매년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1학년 신입생 30명과 기존 장학생 73명 등 모두 103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17년간 500여명의 장학생에게 약 85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장학생 기수별 정기 모임, 워크숍,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4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창립 119주년 기념식'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왼쪽 네번째)이 역대 은행장, 고객대표, 노조위원장, 사외이사들과 함께 기념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손태승 행장 "노력·혁신 통해 미래금융 선도를"

### 우리은행 창립 119주년 기념식 개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4일 서울 회현동 본점 강당에서 창립 1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해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고 밝혔다.

손 행장은 이날 창립기념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을 통해 디지털, 글로벌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금융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오랜 기간 우리은행과 함께한 고객

과 15명의 역대은행장, 사외이사 및 직원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한민국 금융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콘셉트로 우리은행 119년의 역사와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비전을 담은 기념영상 시청, 손태승 은행장의 창립기념사, 박필준 노조위원장과 최병오 비즈니스클럽 회장의 축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각 직급별 직원대표, 은행장, 노조위원장이 핸드 프린팅을 하는 세리모니도 실시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중진공 19~20일 태백4계 포럼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리더십연수원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되는 '태백4계(季) 포럼'에 참여할 중소기업 CEO를 1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태백4계 포럼은 태백 자연환경을 계절별로 4회에 걸쳐 비전 리더십, 열정 리더십, 성장 리더십, 그리고 미래 목표 그리기 등과 자연체험을 연계하여 진행되는 CEO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CEO 비즈니스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기업경영 경험과 새로운 비즈니스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리더십 강의 ▲태백산 천제단에서 성공기원 및 비전설계 ▲천년주목을 통해 배우는 지속생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부동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 특전으로 추가 1일 무료 숙박과 인근 체험지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신점[神占] 운세** 1월 5일 (음 11월 19일) 힐링운세 /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p><b> 쥐 </b> 48년생 후배로 인해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습니다. 60년생 사업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84년생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나란히 합니다.</p> <p><b> 소 </b> 49년생 북쪽에 업무 중 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61년생 대단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3년생 높은 분의 덕택으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85년생 귀하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될 것입니다.</p> <p><b> 호랑이 </b> 50년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62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74년생 겸손하면 길합니다. 86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p> <p><b> 토끼 </b> 51년생 어려움이 한번에 물러옵니다. 63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습니다. 75년생 인내심과 끈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87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p> <p><b> 원숭이 </b> 52년생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64년생 자신의 고집 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76년생 원하는 수준만큼 일이 성취됩니다. 88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p> <p><b> 뱀 </b> 53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7년생 좋은 운을 만났으니 쉽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어렵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됩니다.</p>	<p><b> 말 </b> 54년생 도움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66년생 누군가와 함께 할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78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90년생 평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p> <p><b> 양 </b> 55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지 마세요. 79년생 약간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91년생 진행하는 일에 크레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p> <p><b> 원숭이 </b> 56년생 업무에 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68년생 문제 하나가 우연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80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p> <p><b> 닭 </b>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길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세요.</p> <p><b> 개 </b> 58년생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70년생 실수를 취하는데 집중하세요. 82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4년생 집착으로 유쾌한 하루를 망칠수도 있습니다.</p> <p><b> 돼지 </b> 59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71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83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95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p>
---	---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2								
9	3	2	5				4	
5				9	6			1
		4	6	2				3
			5	1	3			9
8				1	3			7
3	4	9	7				8	
1								

4								6
	8	7	9	6	4	2	5	
	1		4	8			2	
			7		3			
	3			5	6		8	
	7	2	3	8	1	9	6	
9								3

**스도쿠 정답**

7	9	5	8	2	4	6	1	3
2	8	1	5	3	7	9	6	4
6	4	3	2	1	9	5	7	8
9	5	7	2	6	8	1	4	3
1	8	2	9	7	6	5	3	2
3	7	9	6	4	8	7	5	1
8	7	2	9	5	3	1	6	4
5	6	7	8	1	9	2	3	4
2	4	8	6	5	9	7	1	3
1	5	2	7	3	8	9	6	4
7	9	6	1	8	2	4	5	3
5	7	9	1	3	6	2	8	4
4	2	8	6	7	5	1	9	3
1	5	2	7	9	6	4	8	3
9	6	4	2	8	1	5	7	3
8	7	5	1	3	9	6	2	4

문제 제공 =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막차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

일을 보다가 시간이 늦어 지하철 막차를 탄 적이 있었다. 늦은 밤이었는데 고맙게도 그때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이 있었다. 막차여서 그랬는지 객차 안은 한산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노라니 피곤 때문에 정신없이 졸음이 몰려왔다. 한참을 졸다 깨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어느 역에 정차를 했고 금방 가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왜 가지 않는 걸까 궁금함이 들었다.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풀렸다.

지하철 문 앞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열린 객차 문으로 들려왔다. "막차입니다. 빨리 오세요. 열차 출발합니다." 누가 한밤중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봤더니 역무원이었다. 조금 뒤에는 계단을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른 노선을 타고 온 환승객들 중에 이 막차를 타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오는 중이었고 승무원들은 잠시 출발을 늦추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 앞에 선 역원은 몇 번이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몇 명씩 급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그들이 모두 지하철에 타고 난 다음에 승무원들은 객차 문을 닫았다. 만약 지하철이 평소와 같은 시간에 문을 닫고 출발했다면 어땠을까. 다른 노선을 타고 온 사람들은 막차를 놓쳤을 것이다. 지하철이 멈춰있을 때는 잠시 짜증이 나려고 했었다. 몸은 피곤하고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집에 갔으면 하고 있는데 예상처럼 열차가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까지 피곤했다.

그러나 왜 지하철이 조금 늦게 출발하는지 알고 난 뒤에는 오히려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환승 승객의 교통 편의를 생각한 승무원들이 고맙웠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피곤에 찌들어 귀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물씬 느껴졌다. 사람은 역시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서로 도와주고 기대고 협력하며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차가 멈춰 있던 시간은 몇 분 정도였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잠시의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객차는 제법 사람들이 많아졌고 살짝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감사함에 머물렀다. 졸음이 몰려오는 중에도 살짝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고 소리를 지르고 애쓰며 안내한 역무원들, 환승승객들이 막차를 탈 수 있게 기다려준 승무원들이 복을 받았으면 하는 기원을 올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차용사기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이 은 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많아졌다. 당연히 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훨씬 형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는 가장 잦은 예가 '차용 사기'이다. 즉, 돈을 값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경우다. 분명히 나는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못 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수사기관은 죄가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갑자기 무죄라고 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아직 피같은 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개인의 운도 차가 다른 것은 사법기관 탓이 아니라 사기죄 자체의 특수성 때문이다.

차용사기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 사기죄는 아니게 된다. 대부분 범죄가 수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이 동시이거나 근접한 반면, 사기죄는 돈을 빌려주고 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나야 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돈 값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피의자는 없고, 이에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차용사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요즘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기 때문에 굳이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송금내역만으로는 변제기, 이자, 명확한 차용인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차용금 용도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용도를 숙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차용사기에 해당하며, 용도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도 마찬가지로이다.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내용도

차용증에 기재해 놓으면 민형사상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얼마전 대법원은 차용인이 자금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했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선 선불리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일수록 용도, 변제방법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독촉을 하거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확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놓는다면,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효성, 봅슬레이 등 대표팀 응원 이벤트

효성이 4일부터 '효성과 함께 질주하라!' SNS 이벤트를 열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대표팀 선수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썰매 종목 불모지에서 세계 정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들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벤트는 ▲대표팀 선수단 유니폼에서 효성 로고 포착하기 ▲경기 동작을 따라 하는 사진 보내기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누리꾼은 효성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에 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21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케



이크 교환권, 손난로 인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효성은 지난해 9월부터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효성은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기탁하고 해외의료봉사단 '효성 미소원정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LG유플러스, 봉사활동 3600시간 누적**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1담당 1나눔' 활동에 2년간 총 78개 담당, 2231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3618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1담당 1나눔은 담당 단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일봉사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 이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수리 'U+ 희망하우스', 사랑의 김장, 기부용 빵 만들기, 나눔트리 및 역사팝업북 제작, 중증장애학교 한사랑학교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집수리 'U+ 희망하우스'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 서울고등법원, 시민 안전 고민해주길



**기자 수첩  
오 세 성 (산업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로 예정됐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재판인 만큼 취재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재판 방청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공개재판 방청은 희망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가 몰릴 경우 선착순으로 방청객을 선정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서로 방청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 역시 방청 희망자가 몰리며 충돌이 빚어졌고 지난해 8월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1심 결심 공판의 경우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결심 공판 전날 낮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기 시간이 길었던 탓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방청을 기다렸지만 모든 이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재판 당일 아침에 법원을 온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선 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새치기를 시도했고 이들 가운데 한 남성은 새치기를 만류하는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방청 대기줄이 전날 오후부터 생겨났다. 한 겨울에 시민들이 노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

단에 법원 관계자들이 이들을 해산시켰지만, 이러한 상황은 재판 당일 새벽부터 다시 연출됐다. 줄을 선 순서와 새치기를 둘러싼 언쟁도 벌어졌다. 당시 한 시민은 "새벽에 왔는데 법원이 문을 닫았기에 법원 밖에서 기다렸다"며 기자에게 치열한 방청 열기를 전했다.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법원이 별도의 방청 안내를 하지 않았기에 이전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쟁률이 높은 만큼 전날 일찌감치 야외에서 기다리는 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추운 겨울철인 만큼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재판부가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 본다.

/sesung@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5·6급 신입행원 입학식**  
BNK경남은행은 4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5·6급 신입행원 입학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손교덕 은행장은 8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연수 성적 우수자를 시상했다. 이어 신입행원 27명 모두에게 휘장을 달아주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BNK경남은행

## 인사

-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신현은 ◊과장급 승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부장 윤선덕 △인천세관 심사국장 유광수 △인천세관 감시국장 송석범 △창원세관장 하남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 1급 승진 △자동차안전 연구원 자율주행실 홍윤석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 장재필 △제주본부 김용현 △성산검사소 류익희 ◊관리 2급 승진 △도로안전본부 자격관리처 장찬욱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김양숙 △전북본부 안전관리처 이종원 △철도항공안전본부 철도승인처 이지웅 △자동차검사본부 검사전략실 검사기준처 김용달 △구로검사소 양영채 △이현검사소 임재곤 △진주검사소 오태석 △제주검사소 정광영 △자동차

- 차안전연구원 연구개발실 부품연구처 배중호
- ◆비즈니스워치 ◊승진 △부국장(산업부장) 신성우 △부장(개발기획팀) 박창영 △차장(텍스워치팀) 임명규 △차장(사진 담당) 이명근 △차장(텍스워치팀) 이상원 △전보 △증권부장(부국장) 김희석 △경제부장 박호식 △생활경제부장 김준동 △랭킹워치팀장 박수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연구개발 투자심의국장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 이태희
- ◆BC카드 ◊승진 △커뮤니케이션실 전무 최석진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양창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성택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박병영
- ◆계통건설 ◊전무대우 승진 △건축본부 김택중 ◊상무 승진 △토목본부 김기원 ◊상무보 승진 △윤리경영실 이준희 △토목본부 육기중 △경영정보실 김선학 △건축본부 오기섭
- ◆국회예산정책처 ◊임용 △추계세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부이사관) 최미희

## 부음

▲정의창 씨 별세, 정길수(포스코차이나 전 대표)·경림·철수(사업)·주수(사업)·완수(한진 상무) 씨 부친상, 이만희·최재림·심인숙·정해경 씨 시부상, 박

- 경희 씨 장인상=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6일, 02-2227-7500
- ▲손종순씨 별세, 천광희(안양 동안경찰서 정보계장)씨 장모상=4일 오전 5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천동협장례식장 1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043-731-4443
- ▲최태자씨 별세, 이창하(TV조선 심의실 차장)·창훈(삼본정밀전자 수석연구원)씨 모친상, 이윤희씨 시모상=4일 오전 5시 40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2290-9442~3
- ▲신경옥씨 별세, 김순기씨 배우자상, 김혜송(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혜수·혜리씨 모친상, 김형석(케이비피 대표)씨 장모상, 한정화씨 시모상=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6시, 02-2227-7500
- ▲박병민 씨 별세, 김준재(프로야구 KIA 육성지원팀 차장) 씨 장인상=4일, 인천 계양 천기와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6일 오전 7시, 032-546-4444
- ▲이태희(전 성주군의회 부의장)씨 별세, 재경(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재력(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재정(삼한기업 부장)·경수·정수(파란테크 이사)씨 부친상, 전일근(죽전동장)·권택기(휴먼플러스 씨앤씨 전무)씨 장인상= 4일 오전 4시 28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53-560-9552



**한미약품, 새해 첫 업무 사랑의 헌혈로 시작**  
한미약품이 2018년 새해 첫 업무를 사랑의 헌혈 캠페인으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8년째를 맞은 한미약품의 헌혈캠페인은 제약업계 최장기 공익 캠페인으로, 누적 참여자가 7322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 상반기 사랑의 헌혈캠페인'은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 연구센터, 경기도 팔탄 및 평택 플랜트와 국내 사업부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총 286명 임직원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긴급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새해 첫 헌혈캠페인에 참여한 한미약품 임직원들. /한미약품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정 규  
편집국장 이 정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 시속 140km 총알 스피드로 기문 제쳐라

〈경사면에 설치된 기발〉

##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 1 알파인 스키

스피드·테크니컬 종목으로 나뉘어 정동현, 회전 종목서 20위 돌파 목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 땅에서 펼쳐질 올림픽이기에 전국민적인 기대도 높다. 다만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하계올림픽에 비해 다소 생소하다는 점은 장벽으로 꼽힌다. 이에 평창을 2배 더 즐길 수 있도록 각 종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빠른 스피드가 생명인 '알파인 스키'는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다. 스키를 타고 경사면에 설치된 기발(기문) 사이를 질주해 내려오는 스피드를 측정한다.

오는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알파인 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11개다. 대회 금메달이 총 102개이고, 그 중 50개가 스키 종목에 걸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알파인 스키에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으나, 이번 평창에서는 혼성 단체전이 추가돼 총 금메달 개수가 1개 늘어났다.

경기 종목은 크게 스피드(속도) 종목과 테크니컬(기술) 종목으로 나뉜다. 스피드 종목으로는 활강과 슈퍼대회전이 있으며, 기술 종목은 대회전, 회전으로 나뉜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남녀 개인전으로 치러지며, 활강과 회전을 결합한 알파인 복합, 혼성 단체전 등에도 금메달이 걸려있다.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내는 종목은 활강이다. 출발점부터 결승선까지 평균 시속 90~14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내려가는 경기이기 때문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모습(위)과 대회전 경기를 치르고 있는 미국의 미카엘라 시프린의 모습. /연합뉴스

에 부상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선수는 사흘 중 최소 하루는 공식 연습에 참가해야 한다.

회전은 기문으로 표시한 코스를 지그재그로 회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는 경기다. 많은 기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 각도 조절 등 테크닉이 요구된다. 기문 개수는 표고

차에 따라 다르며, 평균적으로 남자는 55~75개, 여자는 45~60개를 설치한다.

활강과 회전은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스피드와 테크니컬에 초점을 맞춘 만큼 스키 길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남자 스키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중요한 활강은 최소 218cm이지만 회전은 165cm로 짧다.

대회전은 회전과 비슷하지만 더 넓은 회전 폭을 갖는 코스다. 회전 경기보다 10m 이상 넓게 구성된다. 반면 슈퍼대회전은 대회전보다 슬로프 경사가 더 가파르고 기문 사이 거리가 25m 이상으로 더 멀다. 회전, 대회전과 달리 경기를 한 차례만 치러 순위를 정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새롭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혼성 단체전은 250~300m 코스로 치러지며, 대회전 기문을 이용해 평행 경기로 진행된다. 기문간 거리는 회전보다 길고 대회전보다 짧게 설정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남자와 여자 선수 2명씩 혼성으로 구성해 16개 나라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알파인 스키의 대표적인 스타 선수로는 여자부의 린지 본, 미케일라 시프린(이상 미국), 남자부의 마르셀 히르셔(오스트리아), 세틸 얀스루드, 악셀 룬드 스빈달(이상 노르웨이) 등이 있다.

한국은 아직 알파인 스키를 비롯한 스키종목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적이 없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허승욱이 회전 21위에 오른 것이 알파인 스키 경기 올림픽 최고 성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한국 알파인의 간판' 정동현이 회전 종목에서 20위권 돌파를 노린다. 정동현은 2014년 소치 대회에서는 41위를 기록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는 2월 11일 남자 활강에서 첫 메달이 나오고 24일 혼성 단체전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는 강원도 정선과 용평 알파인 경기장에서 나눠 진행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알파인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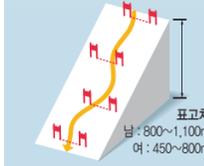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산400)  
용평 알파인 경기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반리 산142-3)



뒤꿈치를 고정하는 바인딩이 장착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속도와 기술을 겨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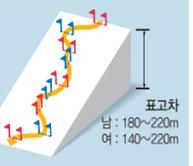
### 활강

정해진 코스를 순서대로 통과하여 도착한 시간 순서로 순위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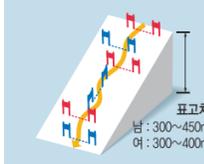
### 회전

기문의 위치를 바꾸어 두 차례의 경기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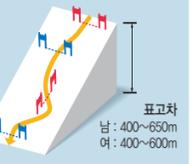
### 대회전

회전 종목과 같은 경기 방식으로 기문 사이가 10m 이상으로 더 넓음



### 슈퍼대회전

대회전보다 더 가파르고 기문 사이가 25m 이상 될 한 차례만 경기하며 활강 중 2번의 점프 실시



### 알파인스키 경기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합뉴스

##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MY뉴스 설정하기



## 완벽하지 않은 형제의 따뜻한 성장

### film review

/신원선 기자 tree6834@

### 그것만이 내 세상

관계 속 아픔 치유해가는 과정 풀어 열연으로 환상적인 형제 케미 보여

완벽해보이는 누군가도 결핍은 있다. 그리고 그 결핍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기도 한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독 최성현)은 부모와 자식, 형제, 그리고 넓게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이병헌)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 인숙(윤여정)과 서번트 증후군인 동생 진태(박정민)를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다.

이병헌이 맡은 조하는 주먹 하나 믿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존심만 남은 한물간 전직 복서다. 만화방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17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엄마 인숙과 재회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로 인해 가슴에 많은 상처를 품고 살아온 조하는 일부러 인숙과 진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툭툭 거리면서도 인숙을 대신해 진태를 복지에 대해 데려다주는가 하면 진태의 늘어진 티셔츠를 신경쓰기도 한다.

한편 서번트증후군을 앓고 있는 진태는 피아노 연주에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 모든 질문에 '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피아



포스터와 스틸컷. /CJ엔터테인먼트

노를 칠 때만큼은 같은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멋짐이 폭발한다.

난생 처음 함께 살게 된 세 가족이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모습은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따뜻한 웃음을 안긴다.

영화는 어린 시절 조하를 남겨두고 집을 나간 엄마 인숙과 조하의 갈등이 점차 완화되는 내용을 그림과 동시에 두 형제의 케미에 주목한다. 이병헌과 박정민은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연기로 극의 몰입력을 높인다.

코믹가족극이라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장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두 배우의 열연 때문.

이병헌의 능청스러운 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연기와 박정민의 섬세한 장애 연기가 빛어내는 환상적인 형제 케미는 이 영화가 내세우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내부자들' '마스터' '남한산성' 등을 통해 완벽한 연기력을 입증한 천의 얼굴 이병헌은 이번 작품에서 전작에서는 본 적 없는 맛깔나는 코믹 연기를 선보일 예정. 동네 형 같은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의 이병헌을 만날 수 있다.

박정민 역시 놀랍다. 많은 감독들과 배우들이 훌륭한 배우로 주목해왔던 그답게 서번트증후군을 지닌 '피아노 천재'를 독창적으로 그려내면서 영화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촬영 3개월 전부터 연습에 매진, CG 처리 없는 피아노 연주 장면을 만들어낸 박정민의 노력에 제작진 역시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진태의 천재성을 알아봐주고 뒤에서 응원하는 한가울 역의 한지민도 스토리의 확장에 일조한다. 완벽한 천재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한가울. 하지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뒤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조하-진태 형제를 만나게 된다. 진태의 영혼이 담긴 피아노 선율에 다시금 세상 밖에 한걸음 내딛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한단계 성장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소재인 '가족'을 살아있는 캐릭터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담아낸 '그것만이 내 세상'은 오는 17일 개봉한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7

1월

5일

음력 : 11월 19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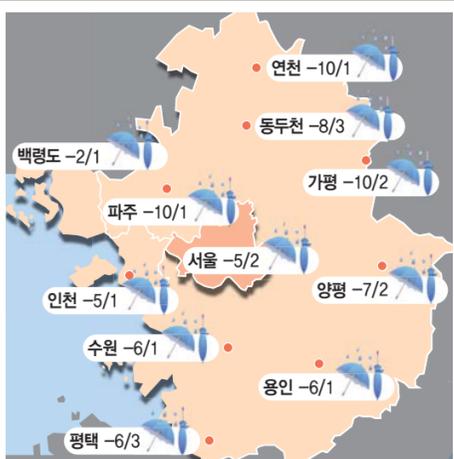
-5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2018 정시 원서접수 D-1... 합격 전략은

# 지원전형별 경쟁률 파악... 추가모집도 고려해야

군별 1곳씩 총 3개 전형에 지원  
전문대학은 지원횟수 제한 없어  
하위권 학과 경쟁률 높아질 수도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에 도전하는 마지막 기회인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6일~9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전문대 원서접수는 6일~16일까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별로 1곳씩 총 3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군별 지원 대학을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지원이 금지된다. 수시모집 최초 합격이 아닌 총원합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경찰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시모집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의 전형방식은 대다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가 적용되므로, 올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수능에 따라



한 입시업체가 개최한 2018학년도 정시 실제점 설명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2018 정시 배치 참고표를 펼쳐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신지원자보다는 하향 안전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판 눈치작전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부 상위권 학과에서 경쟁률이 의외로 낮아지거나, 반대로 하위권 학과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로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자 점수도 전년보다 높아지고,

반대로 지원자가 줄어 경쟁률이 낮아지면 합격자 점수도 전년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한 전형 경쟁률이 중요하다.

때문에 최근 5년간 지원하려는 전형의 경쟁률을 파악해 군별로 몇개의 전형을 고른 뒤 최종 지원할 전형을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시 대학이나 전형 학과마다 별도

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성격과 무관하게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서를 잘 못 썼을 경우에는 전형료 결제 전이라면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결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

한 뒤 결제해야 한다.

대학별 정시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므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뽑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시모집 이월인원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복수 합격자들의 연세 이동이 발생해 진행되는 추가합격자 발표와, 모집 미달이 발생한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모집 기회도 있으므로 추가합격자나 추가모집 등 마지막 기회도 고려해 봐야 한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는 2월 6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되고 7~9일까지 등록기간이다. 미등록 총원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 통보는 2월 20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은 21일 마감된다.

전문대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등록은 2월 7일~9일까지이고, 총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10일~28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대입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사 어플라이와 유웨이 어플라이 두 곳 중 한 곳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 지원하려는 전형을 찾아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 전에도 공통원서를 작성해 등록해 놓는게 좋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신입구직자 90% “나이 때문에 취업 부담”

사람인 설문  
82% “연령 때문에 취업 목표 바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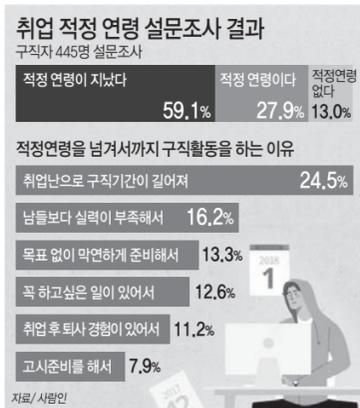
무술년 새해가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한 살 많아진 나이 때문에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에 적절한 연령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이인 신입 구직자 445명을 대상으로 ‘현재 신입으로 취업하기에 적정 연령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59.1%가 ‘이미 지난 것 같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연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27.9%, ‘취업에는 적정연령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2.7%)이 남성(57.6%)에 비해 취업 적정연령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적정연령을 넘겨서까지 구직활동을 하



고 있는 이유로는 ‘취업난으로 구직기간이 길어져서’(24.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남들보다 실력이 부족해서’(16.2%), ‘목표 없이 막연하게 준비해서’(13.3%),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12.6%), ‘취업 후 퇴사 경험이 있어서’(11.2%), ‘공무원 등 고시준비를 해서’(7.9%),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7.6%) 등의 의견이 있었다.

나이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8.1%에 달했고, 이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바꿨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81.9%나 됐다.

나이 때문에 취업 목표를 바꿨다는 응답자들은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직무로 변경’(56.1%, 복수응답)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취업 눈높이 낮춤’(54.5%), ‘많이 뽑는 직무로 변경’(30.5%) 등으로 나타났다.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52.2%는 면접에서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질문으로는 ‘취업 공백기 동안의 경험’(57%,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직까지 취업을 못한 이유’(50.3%)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선배직원보다 많은 나이에 대한 각오’(26.9%), ‘늦은 취업에도 낮은 연봉에 대한 우려’(22.8%), ‘졸업이 늦은 이유’(17.6%), ‘이전에 합격 또는 입사한 기업 여부’(14.5%) 등의 질문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성인 넷중 셋, ‘담뱃갑 경고그림 커져야’

흡연자를 포함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일 간행물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 24.6%, 청소년 17.1%만이 흡연 경고그림(경고문구 포함)이 담뱃갑 포장지의 50%를 차지하는 현행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흡연자를 포함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일 간행물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성인 24.6%, 청소년 17.1%만이 흡연 경고그림(경고문구 포함)이 담뱃갑 포장지의 50%를 차지하는 현행 기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 대학생 10년 후 인생 목표 1위 ‘직업’

잡코리아-알바몬 설문  
대학생 5.4% ‘목표가 없다’  
취업여부에도 부정적 응답

대학생 5명 중 2명만 10년 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생 목표 1위는 ‘직업’이 꼽혔다. 목표가 없다는 대학생들은 10년 후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대학생 1326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어떻게 돼야겠다는 목표

가 있는가’라고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5%가 ‘구체적인 10년 후 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보다 많은 54.1%의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 대신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아예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4%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의 10년 후 목표는 대체로 직업과 경제에 관한 것이었다. 10년 후 목표의 종류(복수응답)를 묻은 결과, ‘어떻게 하겠다’는 직업에 관한 응답이 65.9%로 1위를 차지했다. ‘얼마만큼의 자산, 형편을 형성하겠다’는 경제에 관한 것이 56.5%

로 2위를 기록했다. 자기개발(42.8%), 가족 및 결혼(27.3%), 외모 및 건강(27.3%)이 그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10년 후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바라는 키워드로는 화목한 가정(25.3%)이 꼽혔다. 2위는 소소한 행복(21.0%)이, 3위는 풍족한 자산(17.4%)이 각각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후 목표가 없다는 학생들은 대체로 본인의 취업 여부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1.7%였지만, ‘10년 후 인생목표가 없다’는 그룹(5.4%)에서는 이보다 5배 이상 높은 11.3%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 카이스트 ‘자랑스런 동문상’ 6명 선정

김명환 LG화학 사장 등 6명이 ‘카이스트(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다.

카이스트 총동문회(회장 고정식)는 ‘2017년도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상’에 김병윤 KAIST 창업원장, 김명환 LG화학 사장(배터리연구소장), 장경호 이노스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정진배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6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카이스트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지난 1992년 제정돼 지금까지 26회에 걸쳐 9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신성철 총장이 지난 2010년 수상했고,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유훈 카이스트 교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등이 이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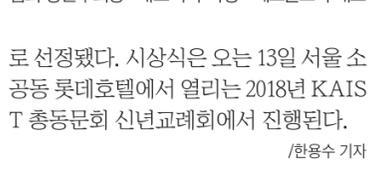
올해도 학술, 사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6인이 수상자



김명환 LG화학 사장



김병윤 KAIST 창업원장, 김명환 LG화학 사장, 장경호 이노스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정진배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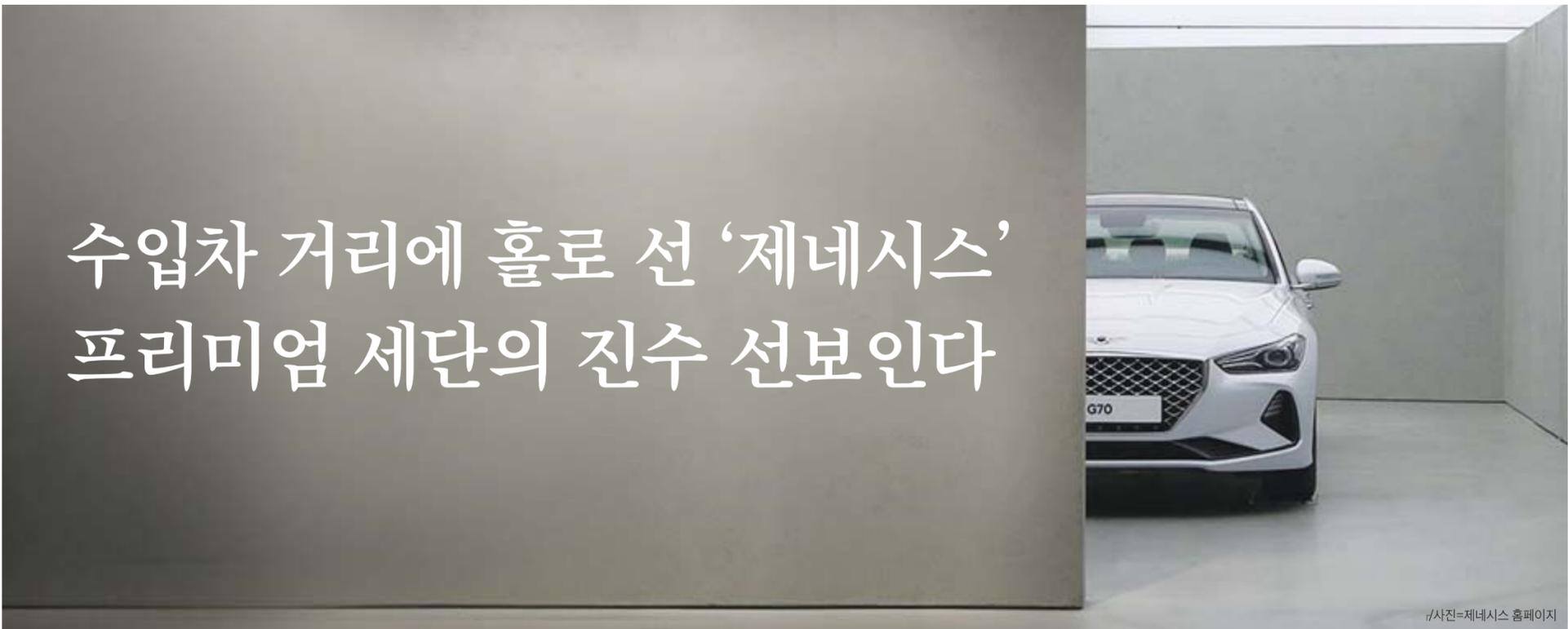


[산업]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新먹거리 찾아 '나홀로 CES행' 10



Life

[엔터·스포츠] 알고보는 평창올림픽 ① 알파인 스키 18



# 수입차 거리에 홀로 선 '제네시스' 프리미엄 세단의 진수 선보인다

/사진=제네시스 홈페이지



## Q 르포

### 제네시스 브랜드 전시관 '제네시스 강남'을 가다

벤츠 등 외제차 줄지은 영동대로에 제네시스만의 브랜드 전시관 오픈

외장 컬러칩·가죽 등 직접 조합해 나만의 맞춤형 차량 미리 볼 수 있어 프라이빗한 응대·시승코스 마련도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수입차 거리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영동대로에 브랜드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 강남'을 오픈했다.

서울 대치동 영동대로에 위치한 수입차 거리는 삼성역부터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 20여개의 대리점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 업체와 미국차 '빅3'로 꼽히는 포드와 크라이슬러, 일본 렉서리카의 대명사인 렉서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소리 없는 격전'을 펼치는 곳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곳에 현대차와 완전히 독립된 제네시스만의 전시관을 오픈한 것은 렉서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4일 '제네시스 강남 전시관(6일 정식 개장)'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

#### ◆ '우리만의 공간'

도시적인 느낌의 콘크리트 마감재를 활용한 2층 건물은 외벽에 제네시스 브랜드 로고만을 적용해 한 눈에 제네시스 전시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네시스 강남'은 총 14명의 큐레이터가 상주하며 이곳을 찾은 고객을 1대1로 전담해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한다. 제네시스 전시관에 들어서자 전시 차량과 회색 톤의 콘크리트 벽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통유리로 외부에서도 전시관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전시관과 달리 외부에서 차량 일부만 보이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특히 실내 전장은 자연광의 느낌을 살린 화이트 색상으로 면조명을 적용했다. 이는 특정 부분에 조명을 비춰 차량의 왜곡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줄이고 실외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함이다.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전시관과 다른 모습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 라인업(EQ900, G80, G80 스포츠, G70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최초의 독립형 전시관이라고 소개했다. 전시장은 세계적인 건축가 렘 콜하스의 건축사무소인 오엠에이(OMA)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또 이 곳에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제네시스의 내외장재와 트림, 옵션 등을 선택하고 해당 차량을 대형 스



제네시스 강남 전시관 전경과 실내 모습.

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네시스 5대가 전시된 1층 쇼룸엔 '우드 라운지', '시편 공간', '컨피규레이터(태블릿PC와 연동된 가상현실 프로그램) 공간' 등 3곳으로 구성됐다.

우드 라운지에서 고객 상담이 진행되고, 시편 공간에선 외장 컬러칩 및 가죽 내장재 실물을 직접 조합해 볼 수 있도록 차체와 가죽 시편이 한쪽 벽면에 전시됐다. 컨피규레이터 공간에는 65인치 TV화면을 설치해 태블릿PC를 통해 나만의 맞춤형 차량을 디지털 화면으로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차량에 옵션을 적용한 견적도 확인할 수 있다.

#### ◆ 제네시스 차량 시승은 '필수'

제네시스 전 라인업의 다양한 컬러와 엔진의 시승차가 준비돼 있는 '제네시스 강남'의 시승은 꼭 경험해 봐야 할 방문객 필수 코스다.

시승만을 위해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론치 베이'는 방문객이 사전에 예약한 색상의 시승차가 미리 준비돼 있으며, 이 공간 안에서 시승을 떠나기 전 충분히 차량을 살펴볼 수 있고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기술 기반의 가이드 앱인 '제네시스 버추얼 가이드'를

활용해 차량 작동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론치 베이'의 한쪽 벽면이 열리면 방문객은 본인이 사전에 선택한 코스로 시승을 할 수 있다. '제네시스 강남'은 본인의 드라이빙 스타일, 차량 성능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5개의 시승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시승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약 15분에서 최대 50분간 강남 일대를 시승해 볼 수 있다. 현재 '제네시스 강남' 전시관에는 10대의 시승차와 9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체험할 수 있는 최초의 독립형 전시관 '제네시스 강남'은 고객들에게 제네시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전문 큐레이터의 더욱 심도 있고 프라이빗한 1대1 고객 전담 응대를 통해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 강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객은 제네시스 홈페이지 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예약해 입장할 수 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